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에 대한 한·중 FTA 대응전략

최 종 보 고 서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요 약 문

1. **연구과제명**: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에 대한 한·중 FTA 대응전략 연구

2. **연구기간**: 2014. 09. 12 ~ 2015. 02. 27

3. 연구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 타결에 이름.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까워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와 비교해 그 영향이 매우 다르므로, 한·중 FTA 타결에 따르는 영향과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대부분 채소와 약용작물이 중국에서 생산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타결이 한국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주요 채소류와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시장에 끼칠 영향과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함

■ 각 품목에 대한 분석과 이들 품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다른 품목과의 연관성, 정책적인 조건 등에 대해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함

4. 연구내용

❑ 양국의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생산현황을 확인

■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주요 채소류의 한국과 중국 내 재배면적, 생산량, 변화 등을 확인하고 그 추세를 확인

■ 당귀, 황기, 천궁, 오미자, 구기자등 약용작물의 한국과 중국 내 재배면적, 주요 재배 지역, 생산량, 변화 등을 확인하고 그 추세를 확인

❑ 조사된 양국의 생산 현황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의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경쟁력을 비교하여,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과 그 정도를 확인

■ 한·중 FTA 타결 시 물류 이동이 자유로워지므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

❑ 양국의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유통현황을 확인

■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주요 채소류의 한국과 중국 내 가격을 비교하고 유통 경로, 변화 추세를 확인

■ 당귀, 황기, 천궁, 오미자, 구기자등 약용작물의 한국과 중국 내 가격을 비교하고 유통 경로, 변화 추세를 확인

❑ 조사된 양국의 유통 현황을 기반으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중국산 품목의 경쟁력 변화를 예측

■ 중국의 생산 및 유통은 이미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중국 내수 증가에 따라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한·중 FTA 대응 전략을 수립

■ 대응 전략의 기조를 수립하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적 방향이나 산업적 전략을 제안

5. 연구결과

❑ 대응 전략의 기조

■ 교역확대 ⇒ 경제통합 ⇒ 문화통합

■ 거래대상은 장기적으로 벤더(經銷商)가 아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 ⇒ 현지 지역유통망에 올라탈 것

■ 상품이 아닌 文化를 팔 것 ⇒ 韓流만이 아닌 漢流를 일으킬 것

■ 농업피해는 부류별로 실제 피해를 냉정하게 따질 필요

■ 중국과 한국은 한 영토라는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할 것 ⇒ FTA는 단순한 상품 이동이 아닌 생산요소의 이동이고 경제통합

❑ 한·중 FTA에 대한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전략은 크게 나누어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그 외의 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수입 농작물에 의한 충격 완화 대책
- 유통·검역 제도 정비
- 원산지 표기체계, 성분 표기체계 개선
- 유통 제품의 품질 최저 기준치 상향 조정

■ 국산 농작물의 경쟁력 강화 대책
- 국내 약용작물 생산단지의 생산량 조정
- 각종 규제 철폐
- 농민단체와의 연계: 농협, 한농연, 품목단체와의 相生

■ 정책적 지원 정책
- 한·중 간, 정부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업무 협력
- 농식품 가공·유통기지 건설: 서해안 간척지(농산물+ 기업브랜드+ 자본)
- 華僑를 적극적으로 활용: 화교는 이전부터 사실상 FTA를 해 왔음
- 중국 연해에 가공·판매기지, 내륙에 광범위한 생산기지 조성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3. 연구의 방법 ····· 3

Ⅱ.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한·중 생산현황 ····· 5
1. 주요 채소류 ····· 5
2. 약용작물 ····· 14

Ⅲ.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한·중 유통현황 ····· 25
1. 주요 채소류 ····· 25
2. 약용작물류 ····· 36

Ⅳ. 한·중 FTA의 국내 영향 분석 ····· 50
1. 중국산 주요 채소류 수출입 동향 ····· 50
2. 중국산 중약재 수출입 동향 ····· 56
3.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에 대한 품목별 피해 추정 및 전망 ·· 60

Ⅴ. 한·중 FTA 대응방안 및 발전 전략 ····· 62
1. 대응 전략의 기조 ····· 62
2.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 ····· 65

Ⅵ. 결론 ····· 70

참고문헌 ····· 72

부록 ····· 73

표 목 차

표 Ⅰ-1. 약용작물 2013년 수입량, 국내 생산량 상위 품목 ····· 4

표 Ⅱ-1. 고추 연도별 경영 구조 ····· 7
표 Ⅱ-2. 고추 생산비 생산비 현황 ····· 8
표 Ⅱ-3. 마늘 연도별 경영구조 ····· 10
표 Ⅱ-4. 마늘 단위 생산비 현황 ····· 11
표 Ⅱ-5. 양파 연도별 경영구조 ····· 13
표 Ⅱ-6. 양파 단위 생산비 현황 ····· 14
표 Ⅱ-7. 전국 중약재자원 센서스 조사 현황 ····· 15
표 Ⅱ-8. 중점 중약재의 생산 현황(2011년) ····· 18
표 Ⅱ-9. 주요 한약재 단위 생산비 현황 ····· 20

표 Ⅲ-1. 양파 생산량 및 저장량 추이 ····· 30
표 Ⅲ-2. 한·중 주요 약용작물 시장가격 비교 요약 ····· 41
표 Ⅲ-3. 한약 구매 시 고려요소 ····· 45
표 Ⅲ-4. 중약재 시장가격의 변화 추이 ····· 47
표 Ⅲ-5. 주요 약용작물 품목 20종 생산량 및 가격 정보(2013년) ··· 48

표 Ⅳ-1. 한국의 고추 수입실적(연산기준: 8월-익년 7월) ····· 51
표 Ⅳ-2. 한국의 마늘 수입실적(연산기준: 6월-익년 5월) ····· 52
표 Ⅳ-3. 한국의 양파 수입실적(연산기준: 4월-익년 3월) ····· 53
표 Ⅳ-4. 국내 김치시장 규모 ····· 54
표 Ⅳ-5. 한국산 김치의 대 일본/중국 수출량 ····· 55
표 Ⅳ-6. 김치의 대 일본/중국 수입량 ····· 55
표 Ⅳ-7. 중약재 수출향 (2014년 1월-6월) ····· 57
표 Ⅳ-8. 산조인의 수입중량 및 수입단가 ····· 59

그 림 목 차

그림 Ⅱ-1.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 6
그림 Ⅱ-2. 국내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 10
그림 Ⅱ-3. 국내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 13
그림 Ⅱ-4. 한국 주요 한약재 품목의 중국내 주산지 현황 ····· 19

그림 Ⅲ-1. 건고추 유통경로 ····· 26
그림 Ⅲ-2. 국내 건고추 가격 추이(연산기준: 8월~익년 7월) ····· 26
그림 Ⅲ-3. 내몽고 개로현 고추 유통방식도 ····· 27
그림 Ⅲ-4. 마늘 생산농가 주요 출하비중 ····· 28
그림 Ⅲ-5. 농협 마늘 계약 수매물량 추이 ····· 29
그림 Ⅲ-6. 국내 양파 가격 추이(연산기준: 4월~익년 3월) ····· 31
그림 Ⅲ-7. 2014년 중국 양파 산지가격 동향 ····· 31
그림 Ⅲ-8. 서주가풍식품유한회사 양파 유통방식도 ····· 32
그림 Ⅲ-9. 한국 1인당 고추 소비량 ····· 33
그림 Ⅲ-10. 한국 1인당 마늘 소비량 ····· 34
그림 Ⅲ-11. 한국 1인당 양파 소비량 ····· 35
그림 Ⅲ-12. 중약재 유통체계 ····· 36
그림 Ⅲ-13. 중약재도매시장 내 제품의 유통형태 ····· 37
그림 Ⅲ-14. 중약재천지망 지역별 센터구축 계획 ····· 38
그림 Ⅲ-15. 중약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 39
그림 Ⅲ-16. 국내 당귀 가격 추이 ····· 41
그림 Ⅲ-17. 국내 황기 가격 추이 ····· 42
그림 Ⅲ-18. 국내 천궁 가격 추이 ····· 43
그림 Ⅲ-19. 국내 구기자 가격 추이 ····· 43
그림 Ⅲ-20. 국내 오미자 가격 추이 ····· 44

그림 Ⅳ-1. 혼합조미료 및 기타소스 유통경로 ····· 51
그림 Ⅳ-2. 중약재 수출대상국별 비중_2013년 ····· 58
그림 Ⅳ-3. 대일본 중약재 수출액 추이 ····· 5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11월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 타결에 이르게 되었음.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까워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와 비교해 그 영향이 크게 다름. 이에 따라 한중 FTA 타결에 따르는 영향과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이나 칠레의 경우 지리적인 거리가 멀고 기후조건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크게 달라 한국과 주요 생산품목이 다름
- ■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과거로부터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함. 이로 인해 신선 과채류와 같이 유통 소요시간이 소비자 선택에 극히 중요한 품목도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채소류의 경우 한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대부분의 작목이 중국에서 생산 가능함. 지리적·기후적 제한은 거의 없으며 작물 생산비와 유통비용이 주된 제한사항임

- ■ 중국산 채소작물은 한국산 채소작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고 과거와 비교하여 품질 경쟁력도 향상되어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채소작물 자급률 하락 및 국내 시장 잠식 우려가 있음
- ■ 고추, 마늘, 양파의 국내 생산의 풍흉에 따라 중국에서의 수입물량이 큰 차이가 있으나,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약용작물류의 경우 한국과 중국을 가리지 않고 지리적·기후적 제약이 큰 작목임. 또한 한국 내에서는 생산지 등의 문제로 재배가 되지 않는 작목이 중국에서는 대량으로 재배되며 FTA 발효 이전에도 관세율이 8% 정도로 낮아 중국산의 유입이 많은 상태임

- ■ 국내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90년대 초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WTO 체제 이행을 앞둔 '94년부터 '00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함
- ■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이른바 웰빙 열풍으로 약용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약용작물의 재배는 물론 약용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방산업과 건강식품 산업 등의 규모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 ■ 약용작물의 수요는 전통적인 식품용, 의료용 소비 이외에도 산업 원료로서 소비

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약용작물이 전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약용작물의 경우 수급조절 품목에 포함된 14개 품목을 제외하면 식용과 약용 구분 없이 8%의 관세만이 적용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약용작물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국내산 약용작물의 경우 중국산에 비해 대체로 생산원가가 높음.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당귀의 경우 약 7배, 천궁의 경우 약 10배가량 생산원가가 차이가 있음

■ 당귀, 천궁, 맥문동 등은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복령은 채취가 아닌 재배에 의한 생산량이 매우 적어 수입량이 상당함

■ 또한 약용과 식용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약용작물 특성상, 약용작물이 식품용으로 대량 수입된 후 약재로 유통되어 가격 폭락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약용작물 산업은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전체 구조가 동시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성립 시 한국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주요 채소류와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시장에 끼칠 영향과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함

■ 한국의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은 높은 생산비로 인해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있으며, 현재의 산업·유통구조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산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의 경우 한국시장에서는 그 안정성을 비롯한 신뢰성에 큰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성을 포함한 고품질 상품의 요구 대응에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각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키우는데 그 주안점을 둠. 또한 이들 품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다른 품목과 정책적인 조건 등에 대해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함

❑ 한·중 FTA 시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3. 연구의 방법

❑ 한국산 작목의 경우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

■ 국내 생산량, 재배면적과 같은 자료는 농업 통계를 이용함

■ 농가와 유통업체 방문 시에는 통계자료에서 도출되는 특이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통계상 누락된 특이점이나 작목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확인함

■ 수출입 데이터의 경우 관세청 자료를 위주로 하나 관세청 자료에서 확인 불가능한 사항은 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함

❑ 중국산 작목의 경우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유통업체와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생산·유통 현황과 한국 시장에 대해 가지는 기대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조사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

■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공인한 약용작물 관련통계가 사실상 전무함

■ 주요 채소류의 통계자료에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며, 통계에 기재된 품목이라

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가 적지 않다고 보임

■ 따라서 중국의 생산·유통 현황에 대한 자료는 직접적인 자료 수집을 위주로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뢰성 있는 기관의 조사 자료를 추가로 이용함

■ 또한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중국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목표 등을 확인하여 중국의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 설정 방향 등에 참고하고자 함

❑ 위의 두 자료를 비교하여 국내 생산량이 많고 수입량도 많은 약용작물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함

표 Ⅰ-2. 약용작물 2013년 수입량, 국내 생산량 상위 품목

순위	수입량		국내 생산량	
	품목명	중량(톤)	품목명	중량(톤)
1	감초	448	건강(생강)	12,142
2	구기자	310	복분자	9,801
3	오미자	231	오미자_경작지	9,565
4	산사자	186	산약(마)	8,499
5	두충	127	양유(더덕)_경작지	7,288

자료: 관세청, 아그릭스 작물생산통계(2013)

Ⅱ.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한·중 생산현황

1. 주요 채소류

1) 중국의 채소류 생산현황

❑ 중국의 채소류[1] 재배면적은 1980~2010년 동안 361만 ha에서 2139만 ha(이중 과채류 재배면적은 약 239만 ha) 으로 약 6배 증가.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12.3%로 큰 폭으로 증가함[2]

■ 채소류 생산량은 1996~2010년 동안 34,000만 톤에서 73,636만 톤(이중 과채류 8,536만 톤)으로 증가

❑ 중국에서 제공하는 중국의 채소류 관련 통계는 구체 품목에 대한 시계열이 제공되지 않아 채소류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변화 추이 파악이 곤란

■ 「中國農業年鑒」에 처음으로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채소류중 배추, 수박, 무, 오이, 토마토, 양배추, 마늘, 가지, 파 등이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점유율이 높은 품목

❑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품목인 주요 양념채소(고추류, 마늘, 양파) 생산 동향은 내수와 수출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증가하는 추세.

■ 중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채소류의 대부분은 국내 내수용으로 소모됨. 수출기지에서 생산되는 주요 채소류가 수출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 내 1인당 채소 소비량이 1990년에 비해 2010년에는 4배 가량 증가[3]하는 등 향후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함

■ 중국 정부 측에서는 이들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에 대해 수매를 통한 비축, 매매를 통해 가격 안정책을 취하고 있음. 이들 채소류의 생산비용은 중국의 GDP가 상승함에 따라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1) 중국의 농업 통계는 과채류를 과실로 분류하여 채소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여기서는 중국 농업 통계상의 채소와 과채류를 합하여 채소류 통계로 활용함
2) 중국의 농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 : 농촌경제 연구소,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1.
3) 중국의 농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 : 농촌경제 연구소,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1.

2) 한·중 품목별 주요 채소류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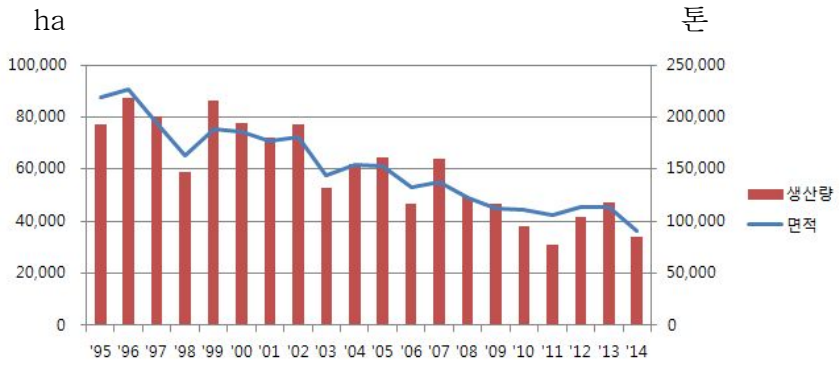
가. 고추

① 한국

❑ 국산 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건고추 재배면적은 1995년 8만 7천ha에서 2000년대 초반 6만 7천ha, 2000년대 후반 4만 9천ha, 2014년 3만 6천ha로 점차 감소하였음.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건고추 생산량은 2001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2-2013년에는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건고추 생산량이 평년 수준(약 10만 톤)으로 회복되었음. 2014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2013년보다 28% 감소한 8만 5천 톤임

■ 건고추 재배면적이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2년 시작된 정부의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힘입어 건고추 비가림 재배면적 비중은 2014년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KREI 농업관측센터)

그림 Ⅱ-3.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 건고추 재배면적은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건고추 최대 주산지는 경북과 충남지역임. 2014년 건고추 재배면적의 지역별 비중에서 경북이 24%로 2005년에 비해 12%p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동, 의성, 영양, 봉화 등을 중심으로 최대 주산지를 유지하고 있음. 2010년 기준, 경북의 재배면적은 10,348ha임

❑ 고추의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방제 및 관수시설 등의 기술발전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추는 정식과 수확 작업이 수작업에 의존되고 있어 여전히 노동투입시간이 많음. 생산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비가 증가하면서 고추 생산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고추 2013년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155시간이며, 노동비는 2005년 846천 원에서 2013년 1,991천 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하였음. 노동투입시간당 고추 소득은 2005년 약 8,200원에서 2012년 약 2만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생산량이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영향으로 1만 2천원으로 하락하였음

표 Ⅱ-4. 고추 연도별 경영 구조

(단위: 시간/10a, 천원/10a)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동투입시간		191	197	179	171	174	168	159	163	155
생산비	생산비 계	1,497	1,617	1,581	1,732	1,848	1,908	2,063	3,049	3,038
	직접생산비	1,289	1,394	1,370	1,488	1,597	1,663	1,789	2,766	2,763
	종묘비	74	81	95	105	107	123	132	132	143
	비료비	76	91	103	122	129	142	138	147	146
	농약비	102	106	115	114	144	151	188	176	171
	노동비	846	906	831	874	948	965	1,027	2,018	1,991
	기타	191	211	226	274	269	282	304	294	312
	간접생산비	208	223	212	244	251	245	274	283	275
소득		1,572	1,791	1,793	1,822	2,001	1,523	3,224	3,288	1,877

자료: 통계청

② 중국

❑ 중국의 고추 생산 통계는 신선고추와 건고추로 나뉘어 집계되고 있음. 신선고추와 건고추의 생산량은 1993년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4]. 2011년 중국 고추의 재배면적은 75만ha 수준이며, 총 생산량은 1,582만 톤으로 이 가운데 건고추 생산량은 28만 톤 수준임. 중국의 건고추 생산량은 1960년대부터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신선고추의 생산량은 1960년대 이후 감소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증가 추세로 전환됨

■ 2012년 전 세계의 건고추 재배면적은 199만ha이고, 중국은 4만 3천ha임. 세계 건고추 생산량은 2004년 279만 9천 톤에서 2012년 335만 2천 톤, 중국은 2004년 23만 5천 톤에서 2012년 29만 톤으로 연평균 각각 2%, 3% 증가함. 재배 면적의 경우 생고추 재배 면적이 건고추 재배 면적보다 훨씬 넓음. 또한

4) FAO 통계자료

1993년과 비교하여 2013년의 건고추 재배 면적은 50% 가량 증가한 반면, 생고추 재배 면적은 290% 가량 증가하여 고추 생산량 증가는 생고추 생산량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역시 꾸준하게 증가중임. 연평균 1~2%가량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3년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1993년 보다 20% 가량 증가함

■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한국 2.36톤/ha(2014년), 중국 6.82톤/ha(2013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높음

- 생산농가의 수익이 낮아 재배면적이 축소되어 2013년 중국 건고추 생산량이 201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KREI 농업관측센터)
- 중국의 신선고추 주산지는 호남지역이며, 건고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운남지역임. 그러나 수출형 생산기지는 주로 북방지역에 분포하여 전통적인 고추 주산지의 생산 경쟁력은 다소 약화되는 추세임(전창곤 외, 2013). 고추 생산비는 1ha당 280,860원 수준이며 1ha 당 생산액은 606,000원 수준임

표 Ⅱ-5. 고추 생산비 생산비 현황

구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비(원/10a)
한국 (2014)		36,000	85,000	3,038,000
중국 (2012)	건고추	43,000	290,000	280,860
	생고추	707,000	15,800,000	

주: 생고추 15,800,000톤은 건고추 약 3,950,000 톤에 해당함
자료: 식량농업기구(www.fao.org)

나. 마늘

① 한국

❑ 1990년대 4만ha 수준이던 마늘 재배면적은 2000년대 3만 2천ha, 2010년 이후 2만 6천ha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노동력 부담과 생산비 증가로 양파 등 타 작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마늘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 요인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마늘 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임. 농가소득이 감소하여 2014년 마늘 재배면적은 25,062ha, 생산량 35만 4천 톤으로 2013년보다 각각 15%, 14% 감소하였음

■ 한국에서 재배되는 마늘 품종은 크게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되며, 난지형 마늘 가운데 남도종과 대서종이 주로 재배됨.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 재배 비중은 각각 20%,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지형과 난지형 남도종 마늘 재배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난지형 대서종 재배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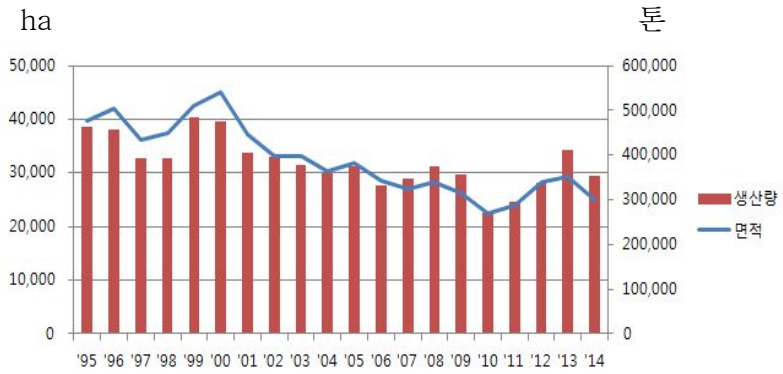
■ 마늘 재배는 전남,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청 기준 15개 주산시군의 재배면적은 국내 재배면적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난지형 대서종 주산지인 경남의 난지형 마늘 재배면적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난지형 남도종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의 마늘 재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충북, 충남, 경북의 경우 한지형 마늘 주산지이나 충남과 경북에서 난지형 대서종 재배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서산, 태안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난지형 재배 규모가 한지형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내의 마늘 10a당 생산비는 2014년 기준 2,788천 원임. 마늘의 파종과 수확작업은 수작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특성이 있어 생산비에서 노동비의 비중이 40%에 달함. 2000년대 중후반 130시간/10a 이상이던 노동 시간이 기계화 등의 생산 기술 개선으로 2010년대 120~125시간까지 감축되었으나 마늘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마늘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후반 40% 수준이었으나 2012~2014년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특히 2014년에는 노동비 비중이 56%까지 증가함

■ 2000년대 중후반 1만 원이던 마늘 노동시간당 소득은 노동시간 감축과 마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2010년 이후 2만 원 내외까지 상승하였음

그림 Ⅱ-6. 국내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표 Ⅱ-7. 마늘 연도별 경영구조

(단위: 시간/10a, 천원/10a)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노동투입시간		134.0	134.5	130.5	124.8	128.5	121.3	122.3	125.6	124.5
생산비	생산비 계	1,475	1,535	1,677	1,676	1,811	2,295	2,811	2,879	2,788
	직접생산비	1,277	1,328	1,447	1,449	1,572	2,022	2,553	2,593	2,544
	종묘비	377	374	431	384	427	824	693	620	520
	비료비	157	169	180	211	229	231	221	240	236
	농약비	44	53	53	60	60	63	63	72	74
	노동비	608	628	659	657	703	746	1,411	1,498	1,548
	기타	91	104	124	138	154	158	164	163	166
	간접생산비	198	207	230	227	239	273	258	286	244
소득		941	1,443	1,146	1,202	3,177	3,053	2,659	2,061	1,634

자료: 통계청

② 중국

❑ 중국은 마늘 최대 생산국으로 중국의 마늘 재배면적은 전 세계의 60%, 생산량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 내 마늘 소비 증가와 주변국으로의 수출 증가 등으로 중국 마늘 재배면적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주요 생산지역은 산동성임

- ■ FAO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마늘 생산은 1993년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생산 증가 폭은 연평균 8% 수준이며, 재배 면적의 경우 2013년 77만7천 ha가량으로 1993년의 38만 ha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임
- ■ 단위면적당 생산량 역시 1993년 12.11톤/ha에서 2013년 24.66톤/ha로 두배 이상 증가한 상태로, 그 결과 마늘 총 생산량은 1993년 4.6백만 톤에서 2013년 19.17 백만톤으로 420% 가량 증가하였음
- ■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한국 14.16톤/ha(2014년), 중국 24.66톤/ha(2013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높음
- ■ 중국의 마늘 주요 재배 지역은 산동, 하남, 강소 등이며, 최대 주산지인 산동성에서도 금향현의 생산량이 산동성 생산량의 70~80% 수준에 달함

❑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마늘 생산비는 1ha 당 59만 원 가량으로 인건비 비중이 47%에 달함.

표 Ⅱ-8. 마늘 단위 생산비 현황

구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비(원/10a)
한국 (2014)	25,062	354,000	2,788,000
중국 (2012)	777,290	16,168,800	884,625

자료: 식량농업기구(www.fao.org)

다. 양파

① 한국

❑ 2000년대 양파 재배면적은 2만ha 미만이었으나 마늘 등에서 재배가 점차 전환되면서 2010년 이후 2만ha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1995년 1만 6천ha, 97만 5천 톤에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생산량이 152만 톤까지 증가하였고, 도매가격 하락 여파로 2012년과 2013년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였으나 2014년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만 3천ha, 159만 톤으로 최대치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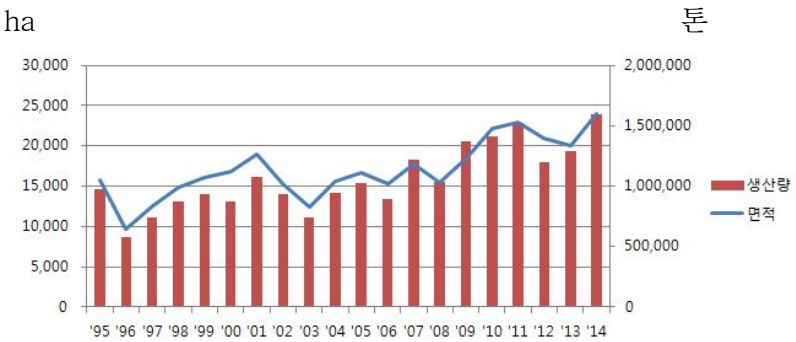
■ 양파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저장량이 증가하면서 조생종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조생양파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7년 조생양파 재배면적 비중은 18% 수준이었으나 최근 2년간에는 10% 미만까지 감소하였음(KREI 농업관측센터, 농업전망 2015)

■ 전라남도 무안군은 양파 재배면적이 3,531ha(2014년 기준)에 달해 우리나라 최대 주산지이며, 신안군은 약 3천ha, 경남 합천군은 약 1천 8백ha 수준임. 제주도의 경우 양파 재배면적이 774ha 수준으로 다른 주산시군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나 재배되는 품종이 거의 대부분 조생양파로 국내 조생양파 최대 주산지임

❑ 국내의 양파 생산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a당 생산비는 2005년 105만 원에서 2014년 214만 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였음. 양파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노동비가 2005년 45%에서 2013년 55%로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 양파 노동투입시간은 현재 기계화가 정착되지 못해 2006년부터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최근 기계를 이용하여 양파 모종을 밭에 정식하는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시간, 비용,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정착 초기 단계임

그림 Ⅱ-9. 국내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표 Ⅱ-10. 양파 연도별 경영구조

(단위: 시간/10a, 천원/10a)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노동투입시간		107.7	111.7	105.4	106.0	103.5	99.9	99.8	106.8	100.1
생산비	생산비 계	1,103	1,186	1,286	1,372	1,422	1,509	1,826	2,157	2,137
	직접생산비	929	1,009	1,062	1,171	1,216	1,297	1,610	1,904	1,908
	종묘비	145	164	191	185	197	194	201	226	225
	비료비	145	146	149	216	192	198	189	239	232
	농약비	52	71	51	68	74	72	68	83	87
	노동비	494	529	565	573	604	671	993	1,189	1,164
	기타	93	100	107	129	149	162	159	167	200
	간접생산비	174	177	223	201	205	211	215	253	229
소득		1,183	994	2,345	2,043	2,308	1,902	2,401	3,078	904

자료: 통계청

② 중국

❑ 중국의 양파 생산 통계는 생양파와 건조 양파로 나뉘어 집계되고 있음. 생양파와 건조 양파의 생산량 모구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2013년 중국의 양파 재배 면적은 약 104만ha이며, 동일년도의 생산량은 약 2,230만 톤임. 양파 재배면적은 1993년의 32만ha에서 300%가량 증가한 것이며 생산량은 1993년의 650만 톤에서 350%가량 늘어난 것임.

■ 건조 양파의 재배 면적이 생양파의 60배에 달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나, 생양파의 생산량 증가 추세가 건조양파의 생산량 증가 추세보다 더 높아 생양파의 비중이 증가중임

■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한국 69.13/ha(2014년), 중국 38.43/ha(2013년)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음

■ 중국의 양파 주산지는 감숙성, 산동성, 강소성, 운남성, 사천성 등으로 양파의 생산비는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10a당 약 59만원 수준임

표 Ⅱ-11. 양파 단위 생산비 현황

구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비(원/10a)
한국 (2014)		23,000	1,590,000	2,137,000
중국 (2013)	생양파	21,600	830,000	590,300
	건조양파	1,025,000	22,300,000	

자료: 식량농업기구(www.fao.org)

2. 약용작물

1) 중국의 약용작물 생산현황

❑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농림어업통계와 농촌진흥청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등이 운영되며 정부가 보증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수집되어 제공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국적인 중약자원 조사를 시행한 것은 1958년부터 지금까지 단 3회로 마지막 제 3차 조사가 1988년에 종료된 이래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중국 전국 범위 중약자원 센서스 제1차 조사는 1958년 중국의학과학원 약물연구소에 의해 실시되었음. 당시 조사는 약 500여종에 달하는 중약재의 기원, 생약, 성분, 효용 등을 정리함으로써 이후 중약자원조사의 토대를 이루었음

■ 196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전국중약자원조사는 3년간에 걸쳐 지역별 주요 약용식생현황을 파악하였고 1,000여종 이상에 달하는 중초약수책 등 자발적인 자원파악내용과 결합하여 [중국대사전]과 [전국중초약회편]등 중약자원 현황파악에 있어 기념비적인 성과물을 출시하였음

■ 1983년부터 시행된 제3차 전국중약자원조사는 조사 규모면에서 이전의 조사와는

차별화되어 명실상부한 중국 중약자원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자리매김 하였음. 당시 제3차 전국중약자원조사는 중의약관리국, 농축어업부, 위생부, 대외경제무역부, 임업부, 중국과학원, 국가통계국 등 정부 7개 중앙 부처가 참여하고 중국약재공사가 주도하여 수행되었음. 당시 중약자원조사는 5년간 소요되었고 또 5년간 기간을 거쳐 1993년에 《중국중약자원총서(中國中藥資源叢書)》를 출판하였는데 총서는 《중국중약자원(中國中藥資源)》, 《중국중약자원지요(中國中藥資源志要)》, 《중국중약구획(中國中藥區划)》, 《중국상용중약재(中國常用中藥材)》, 《중국중약자원지도집(中國中藥資源地圖集)》, 《중국민간단검방(中國民間單嚴方)》 등 총 6편으로 구성되었음

표 Ⅱ-12. 전국 중약재자원 센서스 조사 현황

구분	기간	특징	출판물
제1차	1960년 ~ 1962년	상용중약재 조사, 500종 수록	중약지(中藥志)
제2차	1969년 ~ 1973년	전국 중초약 군중운동, 지역별 중초약 자료 조사 및 수집	중약대사전 (中藥大詞典) 전국중초약회편 (全國中草藥匯編)
제3차	1983년 ~ 1987년	중국약재공사 주도,중약자원 12,807종 기록	중국중약자원총서 (中國中藥資源叢書)

■ 제3차 전국중약자원조사 완료 이후 20여년 동안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약자원조사가 이루어지고 않았음. 환경조건 변화, 인류생산과 사회활동의 영향으로 중국 중약 자원은 상당한 변화를 발생하였고 중약자원의 종류, 분포, 양, 질과 응용 등 모든 분야가 변화하여 20여년 전 자료가 생산지도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중약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중약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국내외의 중약재 수요의 증가 및 자원보호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전국 범위의 중약 자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2009년, 중국 국무원이 [중의약 사업발전을 위한 지원 및 촉진할 단체(國務院關于扶持和促進中医藥事業發展的若干意見)]을 출범하여 전국중약자원조사의 전개와 중약자원의 검측 및 정보화체계 건설 작업의 강화함으로써 현재 중의약관리국이 주도로 본격적인 제4차 전국중약자원조사를 추진중에 있음

❑ 중국 중약자원에 대한 조사는 1983년의 3차 센서스 이후로 제4차 조사를 2011년부터 가동하였음. 본 조사는 중약자원의 자원분포, 생산, 유통, 기술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대형 과제임. 중국중의약관리국은 첫째, 중약자원보호의 강화, 둘째, 중약자원의 개발, 셋째, 중약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 등을 목표로 다음의 4개 주요 사업을 구성하였음

■ 첫째, 지역별 중약재 자원조사

- 전국 22개 성의 지역별 중약재 종류, 양, 분포 등 통계조사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중약자원 9570여 종을 조사, 47,840종 표본을 기록하였고, 종질자원 2,448개, 현장사진자료 899,689장을 기록하였음. 현재 센서스 시범사업은 1/3 정도 진행되었음. 제3차 중약자원 조사 당시 조사한 중약자원은 12,800여종이었음

■ 둘째, 동향검측 및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통계국의 농업센서스 조사는 지역별로 조사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중약재 자원조사는 아직 전문 조사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금번 센서스 조사 이후, 연도별, 주기별 자원변화를 검측하기 위해 센서스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역별 검측센터를 설립함
- 이 센터구축은 중심 플랫홈, 검측잠과 검측지점 등 3개 단계의 중약자원 동향 검측정보와 기술서비스 체계를 포함함. 중약자원의 동향 변화추세를 관측 및 분석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주요 중약재의 생산량, 유통량, 품질과 가격 등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둠

■ 셋째, 종자종묘 번육기지 설립

- 중약자원분포의 특징에 따라 산·학·연 협력의 방식으로 전국 지역별로 중약재 종묘번육기지와 중약종질자원고를 건립하여 국가의 진귀, 대중, 명산지 약재의 번육과 중약종질자원에 대한 보호를 진행함

■ 넷째, 전통지식 조사

- 중약자원 관련 전통지식 상황을 조사함. 전통 약용지식을 조사하여 관련 중약, 민족약 및 민간약의 이론, 약물과 응용 등 전통 약물지식을 계통적으로 파악함. 이를 통해 중국의 전통약물지식체계를 정비하고 중약의 비물질문화유산 신청을 위해 근거를 제공하도록 함
- 2013년 말 기준, 센서스 조사 시범지역에서 민간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1,211명 민간의사 로부터 전통지식 1,054건을 수집함

❑ 제 4차 센서스에는 정부 각 부처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약재 업계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중약재천지망(中藥材天地网)은 20여 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한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 중약재 산지에 800여개 정보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금번 정부의 중약자원조사 가운데서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 2012년에 발표한 “2011년 중약재중점품종유통분석보고”에는 29종 중약품종의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산지평균가격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 보고서에는 중약재도매시장내 반입량, 판매량 등 정보가 추가된 반면 재배면적 정보가 삭제되어 본고는 중국 중점 중약재 생산현황은 상무부가 2012년 발표한 2011년도 데이터를 참고하도록 함

■ 2011년 통계기준으로 29종 중점 중약재 가운데 가장 넓은 재배규모를 갖고 있는 품종은 감초로서 125,408.1ha(1,881천 畝[5])이고 뒤를 이어 재배면적 기준으로 당삼, 후박, 황기, 산수유 순임. 29종 중점 중약재 총 수확면적(363,408.2ha)은 재배면적(562,080.5ha)의 64.7%에 달함

■ 29종 중점 중약재 총생산량은 1,640천 톤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산약의 생산량이 395천 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맥동, 복령, 감초 등 순으로 생산량이 많음

5) 무(畝)는 중국 통상 토지면적 단위로서 1무는 666.7㎡, 15무는 1ha 정도임.

표 Ⅱ-13. 중점 중약재의 생산 현황(2011년)

(단위: ha, 톤)

약용작물명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인삼(人參)	1,322.0	306.6	2,680
삼칠(三七)	11,173.9	316.3	475
천궁(川芎)	10,871.3	10,846.7	40,577
대황(大黃)	7,421.4	1,773.3	15,065
산약(山藥)	16,828.3	16,826.7	394,509
산수유(山茱萸)	39,216.7	34,153.3	12,258
수비계(水飛蓟)	8,646.7	8,646.7	7,572
태자삼(太子參)	4,060.5	3,880.1	6,182
원호(元胡)	7,330.4	7,326.7	32,597
단삼(丹參)	7,646.7	8,226.7	35,880
천마(천마)	6,662.0	2,315.1	18,596
반하(半夏)	795.3	775.3	699
백지(白芷)	1,497.3	1,156.7	7,504
감초(甘草)	125,408.1	81,830.0	120,700
지황(地黃)	5,120.0	5,073.3	111,340
당귀(当歸)	30,329.2	29,964.0	59,672
맥동(麥冬)	3,678.8	3,641.1	208,050
연교(連翹)	13,230.0	11,006.7	20,160
목단피(牡丹皮)	7,420.0	1,886.7	18,640
부자(附子)	3,096.7	3,096.7	15,576
금은화(金銀花)	19,213.3	13,746.7	17,445
복령(茯苓)	3,220.0	3,220.0	200,000
후박(厚朴)	46,912.7	8,811.2	10,656
구기자(枸杞)	21,333.3	20,000.0	60,000
당삼(党參)	75,657.8	46,898.0	97,986
황련(黃連)	14,738.6	4,048.9	6,831
황금(黃芩)	24,517.3	5,420.0	34,305
황기(黃芪)	41,269.2	25,553.9	83,636
녹용(鹿茸)	3,462.9	2,661.0	206
29종 합계	562,080.5	363,408.2	1,639,797

자료: 商務部, 2012

❑ 한국에서 한약재로 주로 사용하는 약용작물의 중국내 도지산지 분포는 그림 Ⅱ-4.에서 볼 수 있음

■ 중약재천지망에서 제공한 2013년도 20종 약용작물의 생산량 정보를 보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차이로 상무부의 2011년도 데이터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볼 수 있음. 중약재천지망이 중약재주산지별로 850개 정보센터를 갖고 있는 유일한 정보수집 가능 기관으로서 해당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음

그림 Ⅱ-14. 한국 주요 한약재 품목의 중국내 주산지 현황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표 Ⅱ-15. 주요 한약재 단위 생산비 현황

구분	구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비(원/10a)
당귀	한국 (2012)	28	1,665	1,560,000
	중국 (2012)	13,000	30,000	240,000
황기	한국 (2012)	21	859	1,370,000
	중국 (2012)		33,000	84,000
천궁	한국 (2012)	90	1,022	1,580,000
	중국 (2012)		10,000	150,000
구기자	한국 (2012)	120	667	5,703,000
	중국 (2012)	160,000	92,000	246,093
오미자	한국 (2009)	1363	3781	3,279,000
	중국 (2012)		42,000	약 420,000

자료: 통계청, 약용작물보고서

2) 한·중 품목별 약용작물 생산현황

가. 당귀

① 한국

❑ 2012년을 기준으로 당귀의 재배 면적은 약 28ha 수준으로, 1990년의 35ha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배면적 변화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로, 30ha에서 40ha 사이에서 증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생산량의 경우 1990년 2,623톤에서 1995년 7,044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여 2012년의 당귀 생산량은 1,665톤 수준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임

■ 당귀의 주 생산지는 평창 지역으로 국내 당귀 생산량 중 50%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국내의 당귀의 생산비는 10a 당 156만 원 수준임

② 중국

❑ 당귀는 주로 감숙성, 운남성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감숙성 주산지 당귀 생산량이 전국 총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함. 감숙 당귀는 최근 몇 년이래 가격이 높아 재배농가들이 대량 재배하고 있어 생산량이 상승하였음

■ 2013년 감숙성 당귀 재배면적은 1만3천ha, 총생산량은 3만톤 정도임. 중국 당귀의 마을로 불리는 민현(岷縣)의 2013년도 당귀 재배면적은 약 6,667ha에 달함

❑ 중국산 당귀의 10a 당 생산비는 24만 원 수준으로 국내에 비해 크게 낮음. 즉, 가격 경쟁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황기

① 한국

❑ 2012년을 기준하여 황기의 재배 면적은 21ha 수준으로, 1990년의 26ha 수준에서 계속해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반해 황기 생산량의 경우 1997년 4,579톤으로 최대치를 보인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 생산량은 859톤 정도임

■ 황기의 주 생산지는 제천 지역으로 국내 황기 생산량의 30%가 제천에서 생산됨

❑ 국산 황기의 생산비는 10a 당 137만 원 수준임

② 중국

❑ 내몽고 지구는 황기 주산지로서 전국 황기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함. 황기는 봄에 파종하고 3년 후 가을, 겨울에 수확함. 단위 당 생산량은 신선 황기 기준으로 450kg 정도, 건조 황기 기준으로 220kg 정도임

❑ 중국산 황기의 10a 당 생산비는 84,000원 수준으로 당귀와 마찬가지로 매우 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다. 천궁

① 한국

❑ 2012년을 기준으로 천궁의 재배 면적은 90ha 수준으로, 1990년의 30ha에서 크게 증가한 상태임.

■ 그러나 생산량의 경우 2012년의 생산량은 1,022톤 수준으로, 1990년의 1,630톤 수준과 비교하면 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였음

■ 천궁이 경우 재배면적 증감이 생산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배 면적의 증감과 생산량의 증감이 일치하지 않으며 그 변화폭도 큼

■ 천궁의 주 생산지는 영양 지역으로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이 영양군에서 생산됨

❑ 국산 천궁의 생산비는 10a 당 158만 원 수준임

② 중국

❑ 천궁의 주 생산지는 사천성이고 12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8월에 수확함. 무 당 생산량은 3000~3500kg 정도임

❑ 중국산 천궁의 10a 당 생산비는 15만 원 수준임. 중국산 천궁 국내산에 비해 큰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라. 구기자

① 한국

❑ 2013년을 기준하여 구기자의 생산량은 667톤 가량으로 2010년 약 700톤 가량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주된 생산지는 전라남도와 충남지역으로 이 두 지역에서 국내 생산량의 90% 가량을 담당함

■ 재배면적의 경우 2010년 약 260ha에서 2013년 약 120ha 가량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② 중국

❑ 구기자는 주로 녕하시 중위시중저현, 청해성 해서주격이목시, 신강 박이탑랍주정하현, 내몽고 고파언뇨이시 오랍특전기 등 지역에서 재배됨. 구기자는 첫 1~5년이 초기 과기, 5~15년이 성과기이고 과육 발육과정은 꽃봉오리기간 12일, 개화기 4일, 과일기간이 30일로서 개화기에서 과일 성숙기까지 45일 정도임. 주산지 녕하는 4월 하순에 꽃봉오리가 피고 5~6월에 제1차 개화, 6월 중순에 과일이 성숙하고 8~9월 제2차 개화, 9~10월에 과일이 성숙함

■ 구기자 주산지인 녕하 중녕의 구기자가 품질이 가장 좋아 재배면적이 5만3천ha에 달하고, 이는 녕하 구기자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달함

■ 또한 녕하 중녕의 구기자는 견과류 기준 생산량이 3만 톤으로 녕하 견과 구기자 생산량의 40% 이상에 달함

❑ 구기자 한국품종은 주로 하북성, 천진, 산서성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2013년도 하북성 청룡현 구기자 재배면적이 2천ha, 4천 톤 정도에 달하였음

■ 기타 구기자 주산지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는데 청해 지역 녹색 구기자 규모재배도 기존의 3천3백ha에서 6천7백ha로 확대되었고 내몽고고 지역도 1만8천ha 확대되었음

마. 오미자

① 한국

❑ 한국의 오미자 주산지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 전체 생산량의 70% 가량을 생산함. 생산량의 경우 2010년에는 약 3천 톤, 2011년에는 약 1천6백 톤, 2013년에는 약 7천 톤 가량으로 연도별 생산량 변화가 극심하며, 재배면적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극심함

② 중국

❑ 오미자는 주로 흑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재배하는데 화기는 10월~12월, 과기는 8~9월임. 오미자 주산지의 재배면적은 크게 확대하고 있어 오미자 생산량이 동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Ⅲ.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한·중 유통현황

1. 주요 채소류

1) 한·중 품목별 주요 채소류 유통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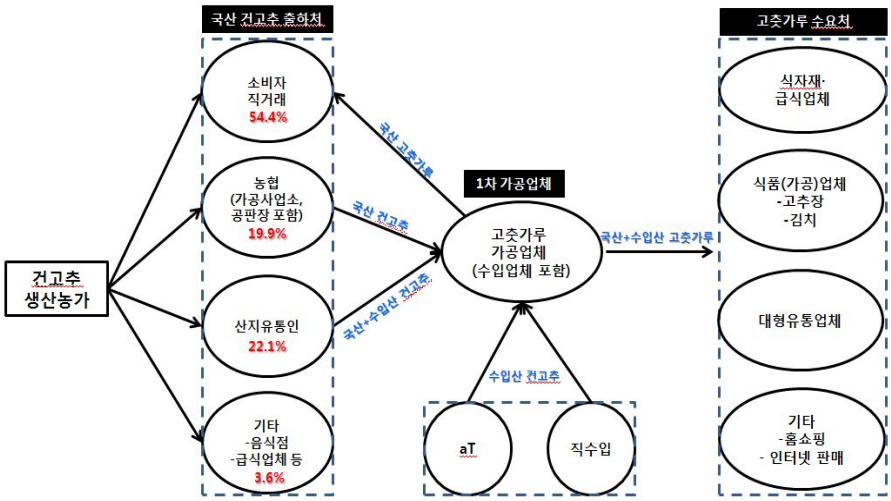
가. 고추

① 한국

❑ 건고추 농가 판매처는 지역농협, 산지유통인, 산지공판장, 직거래이며 산지유통은 대부분 산지유통인에 의해 수집·반출되고, 주요 집산지로 출하됨. 건고추는 8～11월 수확기에 산지유통인, 농협, 농가-소비자간 직거래 등 비교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생산농가의 주요 출하 시기는 수확 직후에서 11월 사이에 90%가 출하되며, 나머지 10%가량은 상온에서 보관되다가 익년 5월 이전에 거의 대부분 출하가 완료됨. 저장출하기에는 건고추 저장량의 상당 부분이 산지유통인과 고춧가루가공업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산지에서 건고추의 산지유통인 취급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KREI 농업관측센터). 산지유통인 판매처는 대량수요처(가공업체, 급식 등), 도매상 등임. 수집·반출상은 지역 고추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3~5명 정도의 수집상을 통하여 수집한 물량을 도매상과 대량수요처 등으로 판매하며, 중간수집상은 일정구역의 농가를 순회하며 수집한 물량을 각 지역의 고추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수집·반출상에 판매함

■ 국내 고춧가루 형태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고춧가루가공업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가정용과 업무용 모두 고춧가루 형태의 구입이 증가하면서 고춧가루가공업체(제분업체)가 가공·분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고춧가루 가공업은 제분 등을 위한 기술·자본이 요구되어 가공업체의 규모가 확대되며 수입판매업을 통합하는 추세임(이용선 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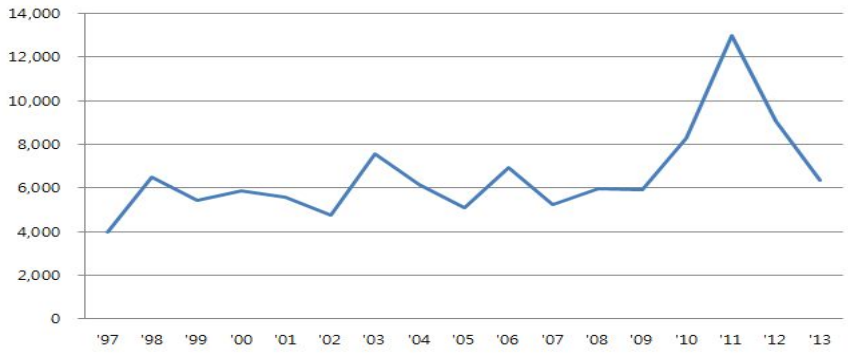
그림 Ⅲ-16. 건고추 유통경로



자료: 이용선 외(2013).

■ 2000년대 건고추 실질가격은 600g당 6,000원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2011년산 건고추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국내산 건고추 화건의 600g당 실질 도매가격은 2003년에 6,084원에서 2010년 8,306원으로 연평균 1.2%, 양건은 2003년에 7,710원에서 2010년 10,012원으로 연평균 6.2% 상승하였음. 2012년 이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일시적인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였던 2010~2011년 이전에 비해 중국산에 대한 대체수요가 늘어나 국내산 재고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음. 국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은 상승 추세임

그림 Ⅲ-17. 국내 건고추 가격 추이(연산기준: 8월~익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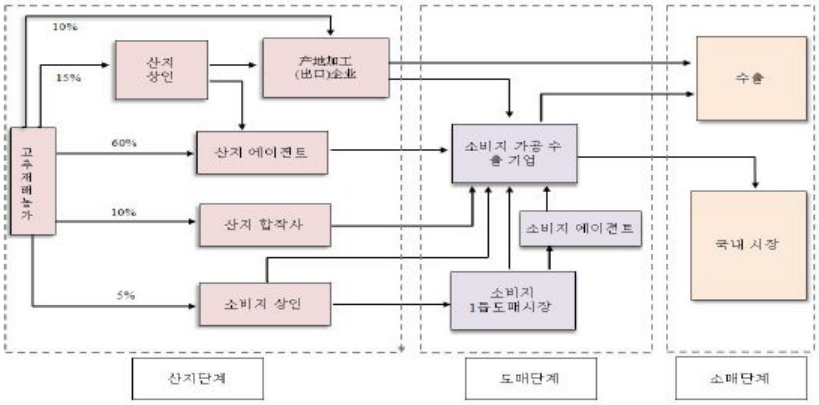
주: 화건 상품 600g당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중국

❑ 1970년대 이후 고추 가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999년 무렵에는 ha당 17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공급 과다로 가격이 하락함. 이후 정책적으로 재배면적을 감소시키고 면적당 수익을 증가시키는 정부 정책을 통해 고추 가격은 다시 상승함

■ 개별농가별 분산재배와 현지 상인에 의한 수매방식이 가장 일반적임(전창곤 외, 2013). 수매된 고추는 주로 산동성 교주시에 위치한 고추집산시장을 거쳐 유통되며 2012년 기준 전국 거래량의 74%를 차지했음. 교주 시장을 거친 고추는 2급도매상과 식품가공기업 등을 거쳐 수출이 이루어짐

그림 Ⅲ-18. 내몽고 개로현 고추 유통방식도



자료: 전창곤 외(2013)

나. 마늘

①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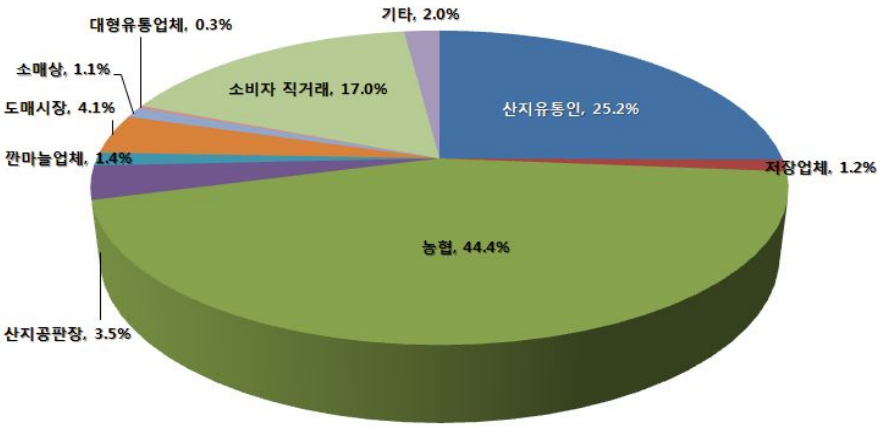
❑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의 유통경로, 출하조직, 비중 모두 약간의 차이를 보임. 마늘 수확기 유통은 농협, 저장출하기 유통은 깐마늘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마늘생산농가 출하는 대부분 9월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협 계통출하가 많은 편임. 난지형 마늘(남도, 대서종)의 경우 9월 이후의 저장출하기에는 저장량의 대부분이 깐마늘업체를 거쳐 도매시장, 대량소비처 등으로 출하됨(이용선 외, 2013). 난지형의 경우 급식업체와 같은 대량수요처에서 최종 소비되는 비중이 33%에 달함. 한지형 마늘의 경우 산지유통인과 소비자 직거래 비중이 난지형 마늘보다 상대적으로 큼(KREI 농업관측센터)

■ 마늘 생산농가의 출하는 주로 수확기인 6~8월에 이루어짐. 출하 형태는 통마늘

(주대 제거 망 포장)이며 출하 경로는 농협 계통 출하 비중이 높은 편임. 마늘 생산농가의 출하 비중은 농협계통(농협+산지공판장) 출하가 전체의 47.7%로 가장 높음. 마늘 산지공판장은 농협이 운영(고흥, 창녕, 남해 등)하고 있어 농가단위 판매는 농협 계통 출하가 비중이 큼(KREI 농업관측센터)

■ 농가단위 마늘 출하 시기는 수확부터 입고시기 이전까지가 70% 내외로 가장 많고, 수확기 이전 포전거래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이 9월 이전에 판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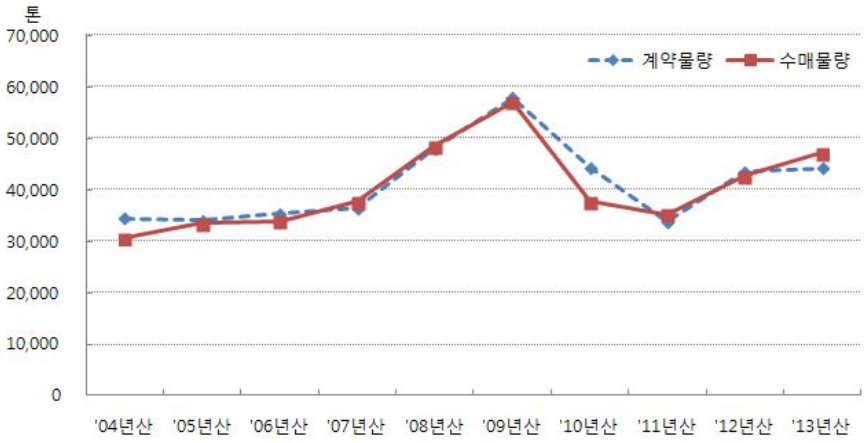
그림 Ⅲ-19. 마늘 생산농가 주요 출하비중



자료: 이용선 외(2013)

■ 농협의 마늘 계약(수매)물량은 2004~2006년 3만 5천 톤에서 2009~2011년 4만 5천 톤으로 증가함. 마늘 생산량 대비 농협 계약·수매물량 비중은 9~10%에서 14~15% 수준으로 증가함

그림 Ⅲ-20. 농협 마늘 계약 수매물량 추이



자료: 이용선 외(2013)

■ 한국의 마늘 연간 저장량은 10~11만 톤 수준임. 마늘 수확 및 가저장 이후 저온 저장창고에 입고되며, 저장마늘은 95% 이상이 깐마늘업체로 출하되고, 5% 미만이 도매상에 통마늘 형태로 출하됨(한국농산물냉장협회)

■ 깐마늘 판매처는 도매시장으로의 출하 비중이 높고, 식품가공업체(김치업체), 식자재·급식업체 출하 비중이 높음. 도매시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속 거래처가 확보되어있어 이들과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깐마늘 가공업체간 과다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001~2009년 마늘의 실질가격은 2,000~3,000원/kg 수준이었음.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2010년 실질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매가격은 하락하였음. 최근 4년간(2010~2013년) 난지형 남도마늘 생산량이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산지가격이 하락함. 2014년 마늘 실질 도매가격은 kg당 약 3,100원으로 국내산 마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13년산보다 20% 상승하였음

② 중국

❑ 마늘 수출기업의 조직화 정도가 낮고 무질서한 경쟁이 심하며 수출기업의 85%가 중소기업으로 연간 수출액이 백만 달러 이하임(전창곤 외, 2013). 중국 마늘의 최대 산지인 산동성 금향현에서는 연간 수출량이 150만 톤에 이르며 178개국으로 수출됨. 중국에서 구입하여 세계로 판매하는 구조로 이 지역은 마늘의 전 세계 수출 가격 형성 센터가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분산 경영형태로 농가 당 평균 재배 면적은 5~6묘 정도인 느슨한 합작 형태를 취함. 금향현 내에서

는 마늘의 생산-가공-무역이 하나로 연결된 완전한 산업 유통 시스템이 형성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 안정화 되고 있음

■ 중국의 마늘 가격은 초기 재배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2005년에는 근당 3.5위안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근당 0.5위안까지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가격이 회복된 2010년에는 근당 6위안까지 치솟는 등 가격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임

다. 양파

① 한국

❑ 출하되는 양파의 66% 가량은 산지유통인을 통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산지유통인은 다시 저장업체에 판매하는 형태임. 2005~2014년 양파 생산량이 연평균 5% 증가하고, 저장시설도 증가하여 양파 저장량은 2005년 48만 톤에서 2014년 77만 톤까지 증가하였음. 조생종 양파는 4~5월에 수확되어 바로 판매되는 비중이 높고, 중만생종은 5~6월 수확되어 생산량의 약 40~50%가 저장됨

표 Ⅲ-21. 양파 생산량 및 저장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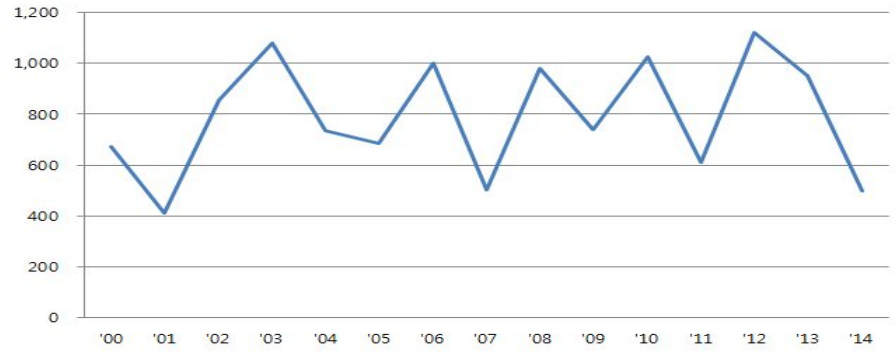
(단위: 천 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량	1,023	890	1,213	1,035	1,372	1,412	1,520	1,196	1,294	1,590
저장량	478	473	522	509	579	574	737	568	662	771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센터.

■ 자급률이 높은 양파 가격은 국내 생산량에 따라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음.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했던 2007년, 2009년, 2011년에는 가격이 하락한 반면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했던 2008년, 2012년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양파 가격은 해마다 생산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추세 측면에서 뚜렷한 상승 추세가 나타남. 양파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그림 Ⅲ-22. 국내 양파 가격 추이(연산기준: 4월~익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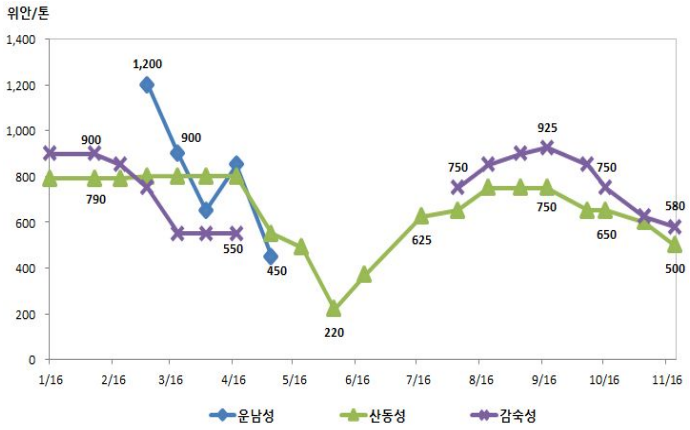


주: 상품 kg당 실질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② 중국

❑ 중국의 양파 가격은 월별 등락이 상당히 심한 형태이나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임. 2~4월은 운남성 햇양파가 주로 출하되는 시기이고, 감숙성과 산동성의 저장양파가 일부 출하됨. 5~6월은 산동성 햇양파가 주로 출하되는 시기임. 2014년 2~4월 양파 산지가격은 감숙성, 산동성의 저장양파 출하량과 운남성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를 보였고, 5~6월에는 산동성 햇양파 생산량 증가, 10월에는 품위가 낮은 양파 출하 등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였음

그림 Ⅲ-23. 2014년 중국 양파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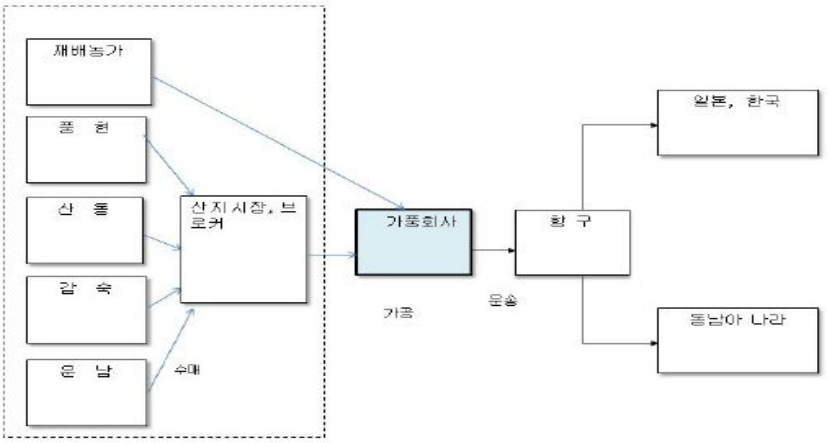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양파 생산량이 가장 많은 육본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양파 출하 형태는 농가-합작사-가공기업 및 소비지 형태가 주를 이룸. 양파 재배 전업합작사가 조직되어 98%의 양파 재배농가가 합작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양파를 판매함. 상품

성이 낮은 양파는 탈수처리되어 가공식품 원료로 판매됨. 육본촌에서 타지로 유통되는 양파의 70%가 자동차를 통해 운송되며 30%는 화물기차를 통해 운송됨

그림 Ⅲ-24. 서주가풍식품유한회사 양파 유통방식도



자료: 전창곤 외(2013)

2) 주요 채소류에 대한 양국 소비자의 소비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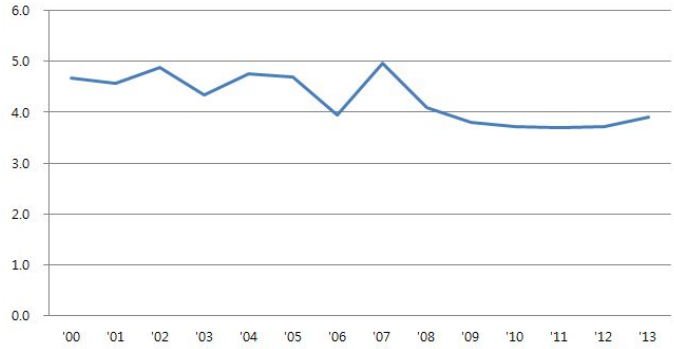
가. 고추

① 한국

❑ 건고추의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4.6kg에서 2012년 3.7kg으로 연평균 3% 감소하였음. 식생활 패턴 변화로 고춧가루, 고추장 등 건고추가 포함된 식품의 소비 비중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건고추 2013년 1인당 소비량은 3.9kg으로 2013년산 건고추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KREI 농업관측센터). 국내 가구 소비자의 경우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가격에 상관없이 중국산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76%로 나타나 양파(66%), 마늘(70%)에 비해 높은 수준임. 건고추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96%, 음식점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알고 있는 가구 소비자가 88%로 나타나 음식점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증가하였음. 가구 소비자의 건고추 구입은 고춧가루 형태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김치, 고추장 등의 가공품 형태도 8%로 조사되어 사용하기 편리한 1, 2차 가공품 소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5. 한국 1인당 고추 소비량

(단위: kg)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② 중국

❑ 중국은 세계에서 최대 고추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소비액은 매년 16%씩 증가하고 있음. 귀주, 호남, 사천 등은 하루 세 끼 고추를 먹으며 특히, 사천, 호남, 귀주 요리 등이 주변 지역으로 보급되면서 중국 내 매운 음식을 먹는 인구가 늘어나 고추 및 고추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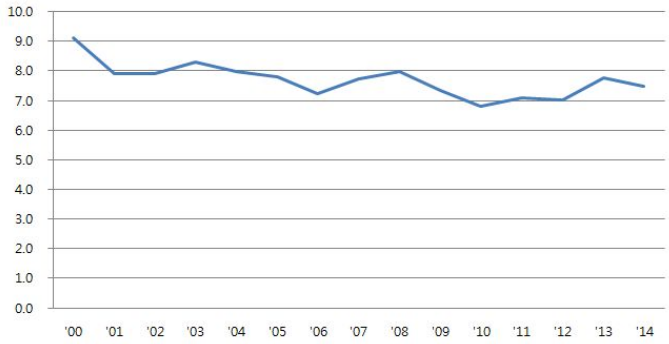
나. 마늘

① 한국

❑ 종구용(국내 생산량의 11.5%)을 제외한 마늘 소비량은 김치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2000년 1인당 마늘 소비량은 9.1kg이었으나 2005년 7.8kg, 2014년 7.5kg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KREI 농업관측센터, 농업전망 2015). 국내 가구 소비의 경우 주대마늘 형태의 소비 비중이 높으나 최근 깐마늘, 다진마늘 등 가공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농가 직거래나 친지 혹은 지인을 통해 조달하는 마늘은 주대마늘, 통마늘과 같은 신선마늘 형태가 80% 이상이고, 대형유통업체와 소매상은 깐마늘 등의 가공품 위주로 거래되고 있음. 국내 가구 소비자의 95%가 마늘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구 소비자의 70%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중국산 마늘의 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국내산 마늘을 구매하고 있음

그림 Ⅲ-26. 한국 1인당 마늘 소비량

(단위: kg)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② 중국

❑ 과거에는 마늘쫑 소비와 조미료용에 그쳤지만 최근 마늘을 마늘가루, 마늘 통조림 등 각종 제품으로 가공하여 대도시 시장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음. 이와 같은 마늘 가공제품이 증가하면서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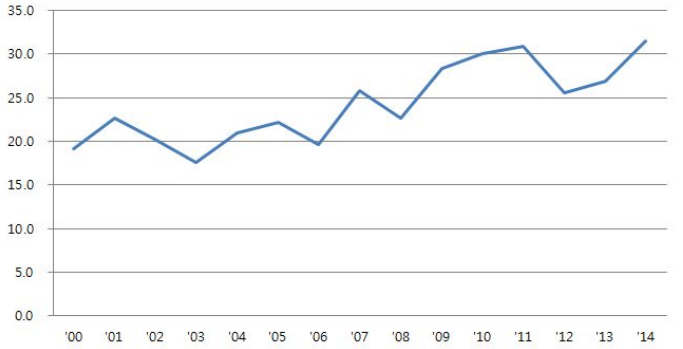
다. 양파

① 한국

❑ 국내산 양파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양파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22.7kg에서 2013년 26.9kg으로 연평균 1% 증가하였음. 2014년 1인당 소비량은 2013년보다 17% 증가한 31.5kg으로 추정됨(KREI 농업관측센터, 농업전망 2015). KREI 농업관측센터 가구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양파 구입 주기는 '월 2회' 42%, '월 1회' 36%, '월 1회 미만' 13%, '주 1회 이상' 9%로 나타남. 양파 구입형태는 '소포장 망' 76%, '10kg 이상 망 포장' 22%이며, 양파 1회 구입량은 '1~3kg'이라는 응답이 62%로 많은 소비자들이 소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양파 소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이유는 '영양가가 높고 건강, 미용에 좋아서'가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용도가 다양해서' 21%, '가족이 좋아해서' 14%, '가격이 저렴해서' 8% 순으로 조사됨. 소비자들은 양파 소비량을 이전과 비슷하거나 늘리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량 증가의 이유는 건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의 66%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중국산 양파의 구입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KREI 농업관측센터, 농업전망 2015)

그림 Ⅲ-27. 한국 1인당 양파 소비량

(단위: kg)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②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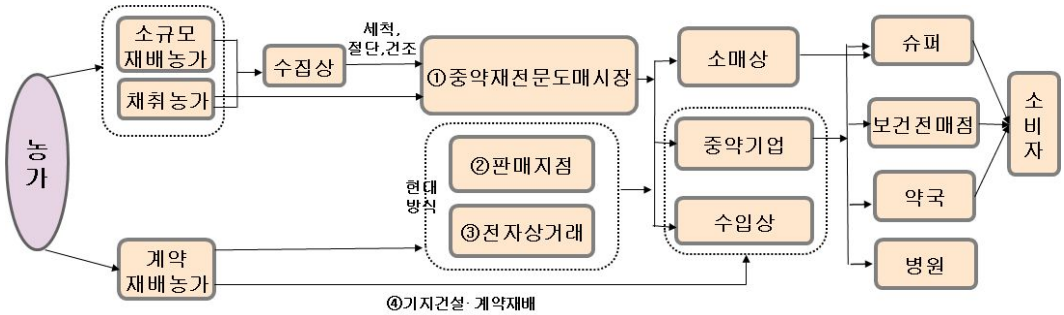
❑ 양파의 영양 가치와 건강기능이 주목을 받으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 양파 가공품이 주목받기 시작한 상황이며 특히 빨간 양파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2. 약용작물류

1) 중국 내 약용작물 유통 현황

❑ 중국의 중약재 유통은 주로 전통적인 수의매매 거래를 진행하는 중약재전문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전문판매지점, 전자상거래, 계약재배 등 현대 유통방식을 보충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림 Ⅲ-28. 중약재 유통체계



자료: 자체 조사

❑ 현재 중국의 중약재 유통은 전반적으로 낙후한 전통적인 시장거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가 지정 17개 중약재전문도매시장의 유통비중이 감소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산지와 소비단계가 직접 연결하는 현대적인 유통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가. 중약재 전문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 중국의 중약재 유통은 중약재전문시장을 기반으로 함.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중약재전문시장은 전국 17개소이며, 홍콩 1개소를 포함하면 18개소에 달함

❑ 중약재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중약재는 농가가 야생 식물에서 채취하거나 소규모로 재배하거나 중소규모 중약재 가공공장들이 간편한 건조시설을 갖추어 원물 중약재를 세척, 건조, 절단 등 기초가공을 거쳐 직접 혹은 수집상을 통해 중약재전문도매시장에 납품함

그림 Ⅲ-29. 중약재도매시장 내 제품의 유통형태

소규모 가게 중약재 진열 상태

원산지 표기 진열제품

가공처리별 각이한 색상을 띠는 제품

중량당 개수 표기 제품

정품가게내 반입제품 선별 및 포장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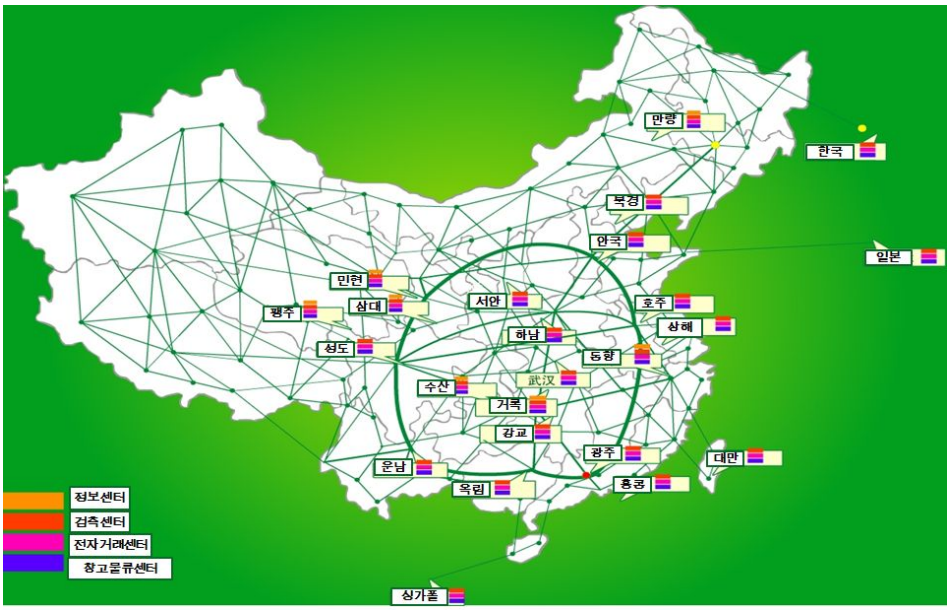
중약재도매시장내 정품가게

나. 물류센터를 통한 유통

❑ 중약재천지망은 20여 년간의 업계종사 경력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중약재산업 발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화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되었음. 2014년말 현재, 전국 36개 지사, 536명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고 전국 850여개 산지에 정보센터를 구축하였음

❑ 중약재천지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국 정보망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정보센터, 사이버거래센터, 창고물류거래센터, 검측센터 등 4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음

그림 Ⅲ-30. 중약재천지망 지역별 센터구축 계획



자료: 자체조사

❑ 현재 성도, 박주, 안국, 옥림, 곤명, 광주 등 6개 지역에 이미 창고물류거래센터가 설립되어 중약재 실물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창고물류거래센터에서 중약재 무역을 진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임

■ 하나는 공급상이 천지망에 위탁하여 천지망이 설치한 창고물류거래센터에서 판매하는 위탁경영임

■ 다른 하나는 交割무역인데 공급상과 수요처가 거래하도록 천지망이 개입하여 거래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 중약재천지망은 향후 전국 6개 창고물류거래센터를 지역별로 확장할 계획이고 한국, 일본, 싱가폴 등 외국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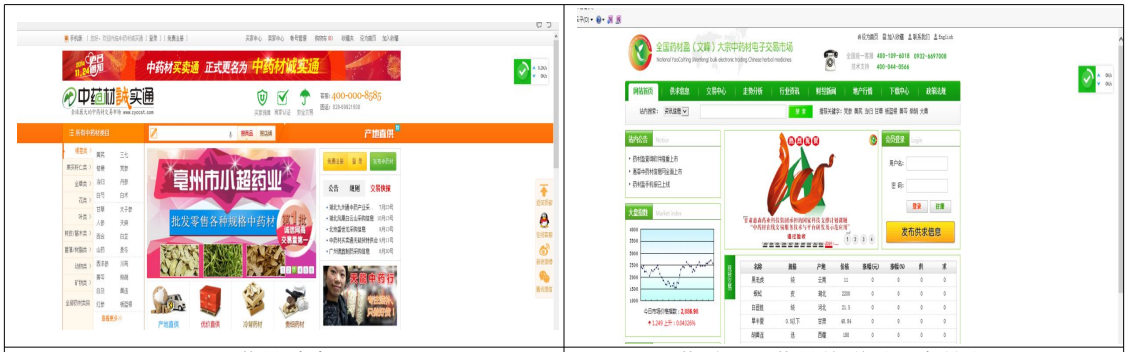
■ 2012년도에 싱가폴에 창고물류거래센터를 설립하였었는데 당시 물량공급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중단되었었음

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

❑ 현재 중약전문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과정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지와 시장 간에 큰 가격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품질 중약재 유통 문제가 심각함

❑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통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줄이고 복잡한 유통과정에서 생겨나는 거품과 저급 상품의 발생을 감소하는 유통방식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최근 3년 이래 중약재의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는 연간 30% 이상 쾌속 성장하고 있음

그림 Ⅲ-31. 중약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中藥材誠實通 | 藥財盈中藥材物聯電子交易市場

❑ 중국의 중약재 전자상거래는 중약재 관련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 회원이 많은 중약재정보망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현재 중약재 전자상거래 방식은 주로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당사자 회원들이 교류 및 거래하도록 정보망기업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개무역 방식과 온라인에서 직접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등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라. 대규모 중약기업 및 수입상의 계약재배

❑ 중약기업들은 대부분 원료공급을 중요시함. 대규모 중약기업들은 중약재전문도매시장 인근지역에 판사처를 두고 원료조달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안

정적이고 우수 품질 원료조달을 위해 도지산지 대농가 혹은 합작사와 계약재배를 진행하거나 수익이 상당히 큰 품목일 경우에는 산지를 임대하여 직접 재배를 진행함

- ■ 예를 들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황기와 같은 품종은 자체 산지에서 직접 재배를 진행함
- ■ 직접 재배를 진행할 경우, 재배지를 농가들로부터 임대한 후, 다시 농가를 고용하여 재배에 대한 기술지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보다 비용이 높음

❑ 일본 중약재 수입상은 중국 중약재 역사자료 기재에 따라 도지약재를 선호함. 전통적인 산지에서 전통계절에 기존의 표준에 따라 원산지 수집을 진행함. 일본의 중국내 중약재 원료를 구입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 ■ 일본 수입상은 중국내 중약재를 구입할 때 상당히 높은 자체표준을 설정하여 적용함. 동시에 해당 표준에 적합한 물품일 경우 고가로 매입함
- ■ 중국내 일본 수집상이 원료구입을 총괄하는데, 수집상은 품목당 보통 100농가 정도를 지정한 후 자체 설정한 고표준에 따라 생산하도록 권장하고 표준에 도달할 경우 고가로 매입함

❑ 중약시장에서 원료 품질이 상당히 중요함. 따라서 중약기업마다 원료 구입을 중요시하고 자체 검역센터와 기술표준을 갖고 있음

- ■ 중국 동인당(同仁堂)은 예로부터 "우량품질"을 대표하는 기업이었고 후에 많이 희석되었지만 지금도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원료조달에 대한 신용도가 높음. 동인당은 대량 원료산지를 직접 운영하고 GAP 재배를 진행하고 있음

2) 한·중 품목별 약용작물 시장 가격 비교

표 Ⅲ-32. 한·중 주요 약용작물 시장가격 비교 요약

중약재명	규격	2011년		2013년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천궁(川芎)	統	3,850	15,667	3,693	13,833
당귀(当歸)	箱歸	4,725	10,667	10,378	12,000
구기자(枸杞)	녕하統	8,400	20,500	7,893	29,916
황기(黃芪	내몽고統	4,200	60,000	7,875	69,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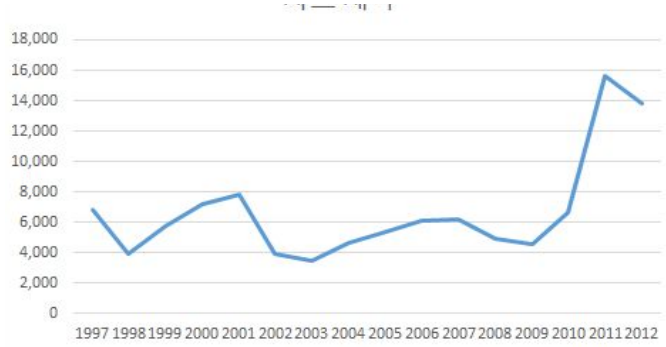
자료: 약용작물 보고서, 통계청

가. 당귀

① 한국

❑ 국산 토당귀 가격은 매년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대구 약령시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7년 6,793원에서 2012년 13,841원으로 가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3. 국내 당귀 가격 추이



자료: 2013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 생산실적, 재가공

②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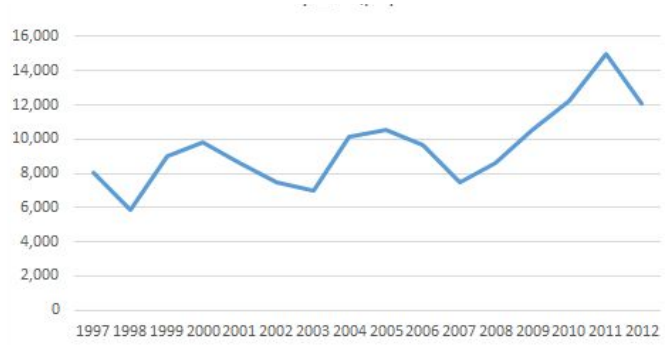
❑ 중국 도매시장에서의 중국산 당귀 가격은 2011년 kg 당 27위안에서 2012년 41위안, 2013년 59.3 위안 등 매년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나. 황기

① 한국

❑ 대구 약령시에서 거래되는 황기 가격은 1997년 8,025원에서 2012년 12,065원을 기록함. 국산 황기의 가격은 매년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Ⅲ-34. 국내 황기 가격 추이



자료: 2013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 생산실적, 재가공

②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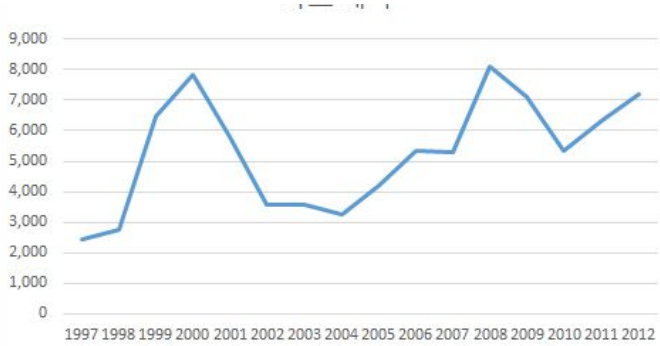
❑ 중국 도매시장에서의 중국산 황기 가격은 2011년 kg 당 24위안, 2012년 30.3위안, 2013년 45위안 등 매년 40%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다. 천궁

① 한국

❑ 국산 일천궁의 가격은, 대구 약령시에서 거래되는 일천궁 가격을 기준으로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7,855원과 7,190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미미한 상승 추세를 보임

그림 Ⅲ-35. 국내 천궁 가격 추이



자료: 2013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 생산실적, 재가공

② 중국

❑ 중국 도매시장에서의 중국산 천궁 가격은 2011년 킬로그램당 22위안, 2012년 16.2 위안, 2013년 21.1 위안으로 보합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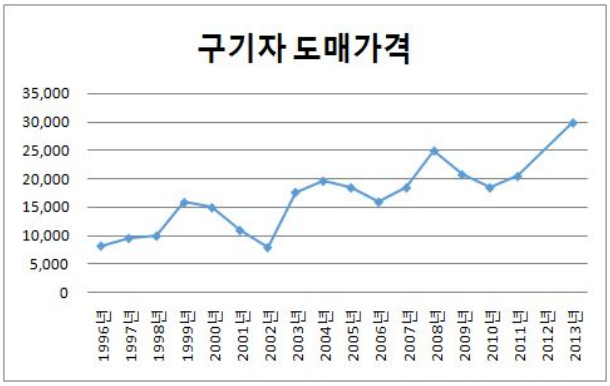
라. 구기자

① 한국

❑ 국산 구기자의 가격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번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Ⅲ-36. 국내 구기자 가격 추이

(단위: 원/600g)



서울 경동약령시장 도매가격(연평균가격)
자료: 2013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 생산실적, 재가공

② 중국

❑ 중국 도매시장에서의 중국산 구기자 가격은 2011년 킬로그램당 48위안, 2012년 47.5 위안, 2013년 45.1 위안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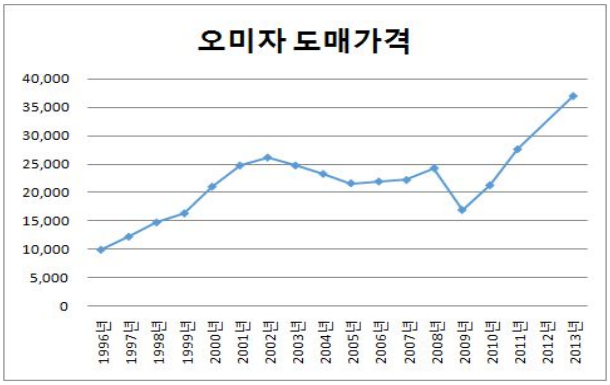
마. 오미자

① 한국

❑ 국산 오미자의 가격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의 급락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Ⅲ-37. 국내 오미자 가격 추이

(단위: 원/600g)



서울 경동약령시장 도매가격(연평균가격)
자료: 2013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 생산실적, 재가공

② 중국

❑ 중국 도매시장에서의 중국산 오미자 가격은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세청에 보고된 중국산 오미자의 국내 수입가격은 2012년 킬로그램당 2782원, 2013년 3235원, 2014년 3663원으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3) 약용작물에 대한 양국 소비자의 소비동향 및 전망

가. 한국

❑ 한국 내에서 약용작물 품목별 소비 유형이나 소비량, 소비자 구입형태와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약용작물이나 한약 구매 시의 소비자 선호는 노재선 외(2013)에 의해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해당 연구에서는 한약 구매 시, 약효에 이어 원산지가 두 번째 고려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음

표 Ⅲ-38. 한약 구매 시 고려요소

(단위: 명, %)

고려 요소	한의원 한의사 명성	효과	한약 원료 (원산지, 안전성)	가격	제조 과정 안전성	부작용/ 임상 연구 결과	맛/ 복용 편리성	체질	주위 평판 (입소문)	계
1순위	73 (23.5)	138 (44.5)	43 (13.9)	8 (2.6)	6 (1.9)	5 (1.6)	1 (0.3)	21 (6.8)	15 (4.8)	310 (100)
2순위	33 (11)	86 (27.7)	73 (23.5)	42 (13.5)	11 (3.5)	18 (5.8)	10 (3.2)	22 (7.1)	14 (4.5)	310 (100)
3순위	17 (5.5)	51 (16.4)	53 (17.1)	67 (21.6)	30 (9.7)	26 (8.4)	11 (3.5)	30 (9.7)	25 (8.1)	310 (100)

자료: 노재선 외(2013)

나. 중국

❑ 한국 소비자는 중국산 약용작물에 대해 신뢰성을 문제시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신뢰도는 점차 개선되어 가는 추세임. 중국 내에서 중약재는 중의약산업의 원천물질로써 중약재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안정화는 중요한 이슈임. 최근 몇 년 간 중약재 가격의 불안정 현상이 거듭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국 중약산업의 위기로 불릴 정도로 심각해지고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

■ 중국 중약산업 전문가들은 최근 불안정한 중약재의 가격파동이 중약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업계 상인들도 중국에서 중약재 생산은 위험도가 높은 주식거래와도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중약재는 가격파동이 심함. 중국 중약재 시장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점매석이 금지되어 있으나 중국 중약재시장의 자본가들은 일인당 보유자본 규모가 한국 전체 한약재 시장 규모에 준할 정도로 거대함. 이들 자본가들이 특정 품목을 집중 매입하는 경우 해당 약재의 도매 가격이 10배 가량 폭등하는 경우도 있음

■ 증루, 북사삼, 반하 등의 약재는 대부분의 수량이 야생 약재가 채취되어 시장에

공급되는데, 이들 약재의 야생지에서 고갈 현상이 일어나 최근의 불안정한 가격 변동이 심화되었음. 백전초는 2010년 kg당 40위안에서 2011년 120위안까지 상승하였다가 2012년에는 7위안으로 대폭 하락하였음. 증루는 중국 중약재 산업에서 연간 2천여 톤의 수요량이 발생하는데 전량 야생채취를 통해 공급되는 자원이어서 채취량 급증에 따라 야생 증루가 멸종위기에 처한 상황임(윤강재 외, 2013)

■ 2013년도 중약재시장의 중점 29종 품목의 가격변화는 다음 표 8 에서 볼 수 있음. 가격상승 품목은 9개로서 상승폭이 높은 품목은 인삼, 당귀, 부자 등 근경류 중약재임. 이러한 품목은 산지가 집중되고 쉽게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음.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중약재 품목은 11개로서 하락폭이 큰 품목은 삼칠, 태자삼, 단삼, 황금, 수비계임. 삼칠가격은 지난 3년간 지속 상승하여 재배농가의 재배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주산지별로 재배규모가 크게 확대하여 공급량 확대를 초래하였음. 산약, 구기자, 후박, 복령, 지황 등 중약재는 대부분 재배 품목이고 식용이 약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파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년 대비 가격 변동폭이 5% 미만임

표 Ⅲ-39. 중약재 시장가격의 변화 추이

(단위: 위안/kg, %)

중약재명	규격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인삼(人參)	統	315	358	671.1	87.5%
삼칠(三七)	剪口	551	785.3	624.5	-20.5%
	60頭	382	720.5	593.6	-17.6%
	80頭	370	695.2	525	-24.5%
	120頭	345	663.1	439.2	-33.8%
	无數頭	320	603.2	416.3	-31%
천궁(川芎)	統	22	16.2	21.1	30.2%
대황(大黃)	水根	8	6.1	7.25	18.9%
	감숙統	15	16.7	15.9	-4.7%
산약(山藥)	統	30	18	18.05	0.3%
산수유(山茱萸)	하남5%核	37	31	36.5	17.7%
	섬서5%核	36	28.6	33.5	17.1%
수비계(水飛薊)	統	14	18.9	12.5	-34%
태자삼(太子參)	선주統	278	219.7	44	-80%
	귀주統	260	208.3	73.4	-65%
원호(元胡)	統	54	52.8	71.25	35%
단삼(丹參)	北統	17	19	11.5	-39.5%
	안휘統	17	18	17.3	-3.9%
	산동統	20	20.4	17	-16.7%
	野統	16	25.4	3.7	-85.4%
천마(천마)	家种特等	150	188.6	190	0.74%
	家种一等	130	162.7	150	-7.8%
	家种二等	110	152.6	122.5	-19.7%
	家統	90	152.2	141	-7.4%
반하(半夏)	統	93	100.3	76.1	-24.1%
백지(白芷)	亳統	17	14.7	14.6	-0.68%
	川統	20	15.3	15.7	2.6%
	하북統	17	13.4	10.25	-23.5%
감초(甘草)	내몽고毛草	16	17.8	14	-21.4%
	신강毛草	18	16.9	12.6	-25.4%
	감숙家統	18	17.3	15.2	-12.1%
지황(地黃)	統	10	14.5	14.3	-1.4%
당귀(当歸)	箱歸	27	40.7	59.3	45.7%
맥동(麥冬)	川統	78	55.8	39.8	-28.7%
연교(連翹)	統	24	33.1	46.55	40.6%
목단피(牡丹皮)	刮丹	33	36.5	26.9	-26.3%
부자(附子)	統	26	25.3	44.7	76.7%
금은화(金銀花)	統	135	92.5	115	24.3%
복령(茯苓)	白丁	16	21.3	20.3	-4.7%
	統片	15	19.8	18.7	-5.6%
후박(厚朴)	統	14	15.6	16.1	3.2%
구기자(枸杞)	녕하統	48	47.5	45.1	-5.1%
	신강統	45	43.5	40	-8.1%
당삼(党參)	白條統	82	85.3	60.2	-29.4%
황련(黃連)	單支統	80	85.6	108.3	26.5%
	鷄爪統	75	81.1	95.7	18%
황금(黃芩)	家統	23	24.7	20.3	-17.8%
	未撞皮統	29	33	15.7	-52.4%
황기(黃芪)	내몽고統	24	30.3	45	48.5%
	감숙統	22	29.9	25.8	-13.7%
녹용(鹿茸)	뉴질랜드鹿	1883	2440	1275	-47.8%
	梅花鹿	4272	6148	5464.7	-11.1%
	馬鹿	1700	1991.1	1600	-19.6%

자료: 商務部, 2014

표 Ⅲ-40. 주요 약용작물 품목 20종 생산량 및 가격 정보(2013년)

(단위: 위안, 톤)

약용작물명	유통규격	위안	생산량	비용
도라지(桔梗)	껍질제거 統个	17	18,000	12
참당귀(当歸)	散把 감숙	30	27,000	17
더덕(沙參)	統條 하북	16	5,000	12.2
황기(黃芪)	家种統个 감숙	16	33,000	16
마(산약山藥)	毛條	11	16,000	8
지황(地黃)	三四五級	12	35,000	5.5-6
천궁(川芎)	晒統	15.5	10,000	8.6
오미자(五味子)	統貨	41	4,200	23
구기자(枸杞子)	統貨	56	92,000	30
복분자(覆盆子)	統	180	700	50
산수유(山萸肉)	3%核陳 섬서	25	6,000	20
율무)薏苡(薏米))	統귀주	16	36,000	13
쑥(青蒿)	全草	1.8	3,000	0.6
두충(杜仲)	統貨	10	4,200	6
오가피(五加皮)	統貨	24	300	14
작약(白芍)	안휘統个	19	8,000	15
식방풍(防風)	秧播 하북	15	6,300	8.5
맥문동(麥冬)	統 사천	50	11,000	40
하수오(何首烏)	家种統片 광동	20	5,100	14
강황(姜黃)	統个 사천	15	3,500	7.5

주: 중약재정보망에서 발표한 안휘성 호주중약재전문도매시장의 가격정보
자료: 商務部, 2013.

■ 자연환경에서 채취하거나 재배하는 특성을 가진 중약자원이 시장기능을 통한 수요와 공급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정한 중국의 중약재 가격문제가 한국의 한약재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불안정한 가격은 해당 약재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의약품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매년 대량 약용작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현지 중약재 가격변동이 국내 사용 약재의 수급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문제임. 따라서 수입 중국산 중약재의 품종별 생산현황과 가격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수 품질 중약재를 수입하기 위한 수입경로 모색에 노력하여야 함

Ⅳ. 한·중 FTA의 국내 영향 분석

1. 중국산 주요 채소류 수출입 동향

1) 고추

❑ 중국의 건고추 총 수출량은 2004년 7만 3,116톤에서 2012년 5만 1,960톤으로 연평균 4% 감소하였음

■ 중국의 건고추 국가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수출량이 2004년 2만 4,885톤에서 2012년 9,655톤, 멕시코 수출량은 2004년 1만 242톤에서 2012년 1,967톤으로 연평균 각각 12%, 21%로 크게 감소함.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004년 1만 1,656톤에서 2012년 6,938톤으로 연평균 7% 감소하였음

❑ 한국의 고추류 총수입량은 2005년산 6만 8천 톤에서 2013년산 9만 6천 톤으로 연평균 4%씩 증가하였음. 2012~2013년산 고추류 수입량은 9만 6천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고추 공급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와 고춧가루(270%)의 민간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나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 혼합조미료·기타소스(45%) 등을 중심으로 고추류 관련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산 건고추의 국내 판매가격은 2005년 600g당 5,110원에서 2013년 6,113원으로 상승하였음. 2010년 이전에는 중국산 건고추의 가격 경쟁력이 국내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나 2011년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국산 건고추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었음. 특히, 냉동고추의 가공 후 국내 판매가격은 국내산 건고추 도매가격의 약 50% 수준임

표 Ⅳ-41. 한국의 고추 수입실적(연산기준: 8월-익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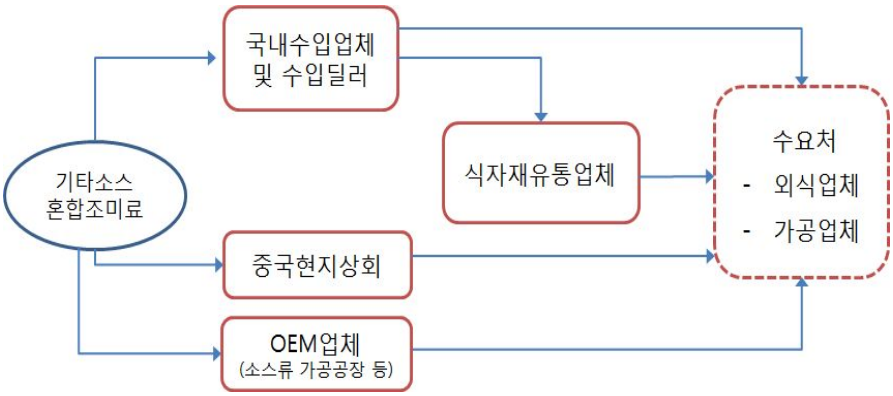
(단위: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고추	4,408	3,717	3,733	3,789	3,577	4,150	10,382	4,795	6,543
관련품목	56,913	73,144	77,714	76,900	73,510	89,686	98,812	91,514	89,863
전체	67,722	82,694	87,623	86,357	81,160	101,422	119,256	96,749	96,406

자료: 한국무역협회

❑ 최근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이 감소하고 혼합조미료 및 기타소스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산 다진 양념(일명 다대기-고춧가루에 마늘이나 생강, 양파, 간장 등을 혼합하여 가공한 양념)은 기타소스 형태의 수입이 많고, 식자재업체, 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유통되고 있음

그림 Ⅳ-42. 혼합조미료 및 기타소스 유통경로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농업전망 2015

2) 마늘

❑ 중국의 마늘 교역량은 전 세계의 40% 수준이며 수출량은 세계의 80% 수준임. 2013년 중국마늘 수출량은 180만 톤 수준으로 자국의 수급이 불안정했던 2012년보다 크게 증가함

■ 중국의 주요 마늘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고, 2000년 이후 미국, 브라질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특히, 인도네시아로의 수출량은 중국 마늘 전체 수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마늘 수출은 신선·냉장마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공품 중에서는

건조가공 형태의 수출 비중이 높음. 동남아시아, 브라질 등으로는 통마늘 형태의 선선·냉장마늘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가공품 위주로 수출되고 있음

■ 중국의 주요 마늘 수출지역은 산동성, 강소성, 하남성, 운남성 등으로 네 지역의 마늘 수출량은 중국 전체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주요 생산지인 산동성의 마늘 수출 비중은 중국 전체 마늘 수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마늘 연간 수입량은 5만 톤 내외이나 국내 2010~2011년산 마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9만 톤까지 증가하였음

■ 통마늘의 경우 TRQ, 할당관세 등 저율관세(50%)가 적용되는 물량 위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관세가 높아(360%) 민간수입 형태는 적은 수준임

■ 한국의 마늘 수입은 관세가 낮은 냉동마늘(27%)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냉동마늘의 국내 판매가격은 국내산 통마늘과 깐마늘(중품 기준) 가격의 45%, 30% 수준에 불과함

표 Ⅳ-43. 한국의 마늘 수입실적(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깐마늘	8,578	768	1,755	2,135	2,020	1,095	1,360
통마늘	13,641	13,418	3,418	36,003	32,330	10,056	1,005
냉동마늘	31,520	32,836	31,234	47,227	50,951	30,313	41,846
건조마늘	1,170	2,663	8,430	904	2,505	4,381	4,178
초산조제	6,407	6,001	6,390	3,936	4,224	4,611	5,082
전체	61,316	55,687	51,226	90,205	92,031	50,456	53,471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양파

❑ 중국 양파 수출량은 2002년 25만 9천 톤에서 연평균 12% 증가하여 2011년에는 74만 2천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2년, 2013년은 각각 62만 톤, 68만 톤으로 2011년보다 감소하였음

■ 2002년부터 중국의 양파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수출단가가 높은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의 양파 수입은 국내 가격이 높았던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임. 국내 양파 자급률은 95% 이상으로 양파 공급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

■ 고율관세(135%)인 신선양파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며, 한·중 FTA 타결에서 양파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당분간 양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Ⅳ-44. 한국의 양파 수입실적(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선양파	9,793	10,508	25,796	7,368	62,943	31,767	862
건조양파	16,014	34,472	19,851	10,141	17,500	21,409	11,712
냉동양파	150	348	3,195	3,148	3,544	6,869	4,135
초산조제	12	53	98	61	75	48	15
전체	25,970	45,381	48,940	20,718	84,062	60,093	16,723

자료: 한국무역협회

4) 김치 및 다진 양념

❑ 고추 수입량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춧가루 형태의 수입량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 이는 고추 가루 자체의 한국 수요가 감소했다기 보다는 국내 김치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추의 소비 형태가 원재료인 고추 보다 완제품인 김치나 고추장, 다진 양념 등의 형태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임

표 Ⅳ-45. 국내 김치시장 규모

구 분		'08	'09	'10	'11	'12	'13
시장규모 (억 원)	전체 김치시장	22,806	22,681	23,321	23,806	23,987	24,170
	- 가정제조	12,065	11,914	12,082	12,124	12,055	11,876
	- 상품김치시장	10,741	10,767	11,239	11,682	11,932	12,295
	(상품화비중/%)	(47.1)	(47.5)	(48.2)	(49.1)	(49.7)	(50.9)
생산량 (천 톤)	전체 김치시장	1,315	1,276	1,238	1,231	1,210	1,204
	- 가정제조	832	789	750	744	718	698
	- 상품김치시장	483	487	487	488	493	506
	(상품화비중/%)	(36.7)	(38.2)	(39.3)	(39.6)	(40.7)	(42.0)

자료: 김치 협회

❑ 김치 중 양념채소류 함량은 김치 종류와 제조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고춧가루 5%, 마늘 1.5%, 양파 3% 수준으로, 김치 1톤 당 고춧가루 50kg, 마늘 15kg, 양파 30kg 가량이 수입된다고 추산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2014년의 김치 21.3만 톤 수입은 고추 10,650톤, 마늘 3,195톤, 양파 6,390톤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 가능함

■ 수입 고춧가루의 경우 건조된 것과 건조되지 않은 것의 중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김치 수입으로 인한 고추의 수입이 건고추 수입량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마늘이나 양파의 경우에도 김치 수입으로 인한 수입이 단일 품목으로 수입되는 양의 10% 가량으로 추측됨

■ 이와 같은 추산은 완제품으로 김치 한 품목만을 고려한 것으로 다진 양념, 고추장, 기타 소스 등 다른 품목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입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임

❑ 중국산 다진 양념의 경우 제조 과정 중 쇳가루 혼입 등으로 국내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임. 소비자 단체는 다진 양념이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재가공 되는 경우 전(全) 성분이 표시되지 않는 현행 성분함량 표시제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표 Ⅳ-46. 한국산 김치의 대 일본/중국 수출량

(단위: 톤, 달러/kg, 천 불)

연도	계			일본			중국		
	중량	단가	금액	중량	단가	금액	중량	단가	금액
`00	23,433	3.36	78,847	22,261	3.43	76,463	231	1.04	241
`01	23,785	2.89	68,731	22,200	2.93	65,028	12	2.59	30
`02	29,213	2.72	79,318	27,097	2.74	74,126	19	2.24	42
`03	33,064	2.82	93,195	30,584	2.85	87,169	69	2.72	188
`04	34,827	2.94	102,726	32,428	2.99	96,911	25	2.53	63
`05	32,307	2.88	92,965	29,663	2.91	86,428	17	2.92	50
`06	25,600	2.75	70,328	22,793	2.81	62,637	29	0.92	27
`07	26,470	2.85	75,309	23,493	2.81	66,120	6	1.68	11
`08	26,897	3.17	85,295	23,524	3.15	75,052	46	2.74	125
`09	28,505	3.13	89,386	24,389	3.18	77,622	94	2.6	245
`10	29,672	3.31	98,360	24,134	3.43	82,781	117	3.24	378
`11	27,429	3.81	104,577	22,053	3.94	86,819	61	3.88	235
`12	27,644	3.85	106,608	21,450	3.94	84,588	4	4.38	15
`13	25,631	3.48	89,277	19,211	3.43	65,851	0.03	3.91	0.1
`14	24,742	3.40	84,033	16,968	3.34	56,615	3	6.32	16

자료: 김치 협회

표 Ⅳ-47. 김치의 대 일본/중국 수입량

(단위: 톤, 달러/kg, 천 불)

연도	계			일본			중국		
	중량	단가	금액	중량	단가	금액	중량	단가	금액
`00	473	0.43	202	467	0.38	177	6	4.16	25
`01	393	0.5	199	393	0.5	195	0.3	11.34	3
`02	1,051	0.45	474	1,042	0.45	468	0.04	10.62	0.5
`03	28,707	0.36	10,315	28,702	0.36	10,288	1.2	20.65	25
`04	72,605	0.41	29,473	72,605	0.41	29,472			
`05	111,459	0.46	51,340	111,429	0.46	51,312	4	2.54	11
`06	177,959	0.49	87,955	177,922	0.49	87,936			
`07	220,306	0.5	110,842	220,306	0.5	110,842			
`08	222,370	0.51	112,715	222,369	0.51	112,713			
`09	148,124	0.45	66,335	148,124	0.45	66,335	0.01	8.07	0.1
`10	192,936	0.53	102,019	192,936	0.53	102,018			1
`11	230,078	0.53	120,874	230,078	0.53	120,874			
`12	218,844	0.51	110,842	218,842	0.51	110,826	2		14
`13	220,218	0.53	117,431	220,218	0.53	117,431			
`14	212,938	0.49	104,396	212,938	0.49	104,395			

자료: 김치 협회

2. 중국산 중약재 수출입 동향

❑ 2013년도 중국의 중약재 총수출입액은 4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음. 이 중 수출액은 31.4억 달러로 25.5% 증가, 수입액은 10.8억 달러로 23.7% 증가하였음

■ 식물 추출물과 중약재 인편은 주된 수출입제품으로 2013년 총수출액의 83.6%, 총수입액의 74.9%를 차지함. 식물추출물 수출액은 14.1억 달러, 중약재 인편의 수출액은 12.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21.3%, 41.2% 증가하였음. 한편 중약재 인편의 평균 수출단가는 kg 당 5.96달러로 40.4% 상승하였음

- 수출제품 구조로 보면 식물추출물 수출은 대체로 색소류, 천연단맛효소, 선식 보충제, 약용원료 및 화장품용 정유류 제품 등임

❑ 전통적인 수출 우위품목은 인삼, 구기자, 지황 등 주로 약식동원 제품임. 수출량 기준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는 삼칠, 구기자, 지황으로서 모두 50%를 초과하였음

■ 삼칠의 수출량 증가율은 124.7%에 달하였는데 이는 지난 몇 년간 삼칠 가격의 증가폭이 이상하여 그동안 억제되었던 수요가 2013년 삼칠가격의 적정상황에 따라 해소되었기 때문임

❑ 반면 수입품목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초, 서양삼 등임. 2013년도 감초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수입액이 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8% 증가하였고, 수출액 2,200만 달러를 크게 초과하였음

표 Ⅳ-48. 중약재 수출동향 (2014년 1월-6월)

품명	수출량 (kg)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만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가격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량 비중
인삼	71,1551	-34.2	7,644.0	22.9	107.4	86.9	0.8
구기자	535,1824	35.8	4,962.8	46.4	9.3	7.9	5.9
지황	724,1171	-20.3	3,104.6	-3.1	4.3	21.5	8.0
당삼	202,1950	-28.5	2,707.4	15.1	13.4	61.0	2.2
복령	6,079,233	-6.5	2,700.0	13.6	4.4	21.6	6.7
백술	4,981,626	-41.3	2,321.0	-20.1	4.7	36.1	5.5
천궁	4,504,627	-11.4	1,953.7	13.3	4.3	27.8	5.0
국화	1,688,882	-57.8	1,888.8	-14.4	11.2	103.0	1.9
전칠	364,958	-87.6	1,597.6	-53.5	43.8	276.1	0.4
작약	3,125,561	-23.0	1,575.2	7.0	5.0	38.9	3.4

자료: 자체 조사

❑ 식물추출물 수출 증가율이 회복추세를 보였음

■ 2012년도 식물추출물 수출액은 1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증가율이 20년 이래 최저치였으나, 2013년도 식물추출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여 정상 증가 속도를 회복하였음

❑ 식물추출물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과 일본으로서 2013년도 수출액이 각각 3.1억 달러, 1.9억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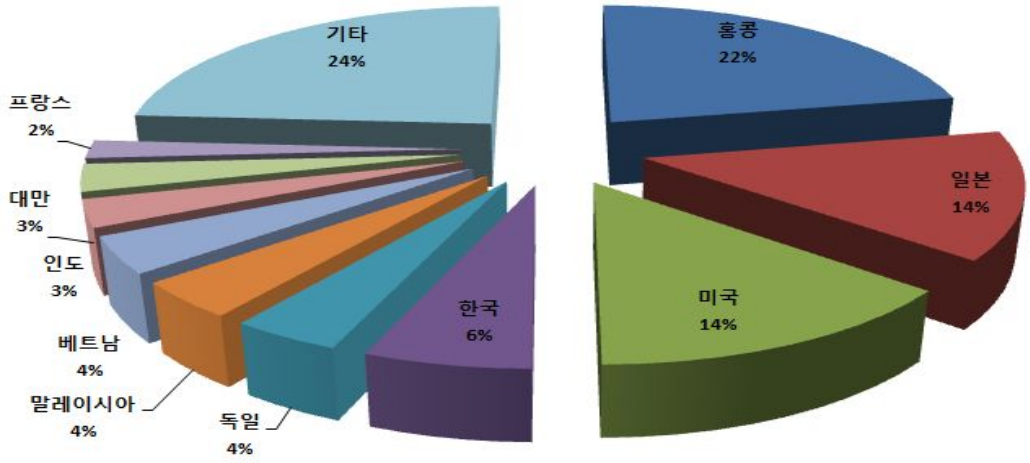
■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3.3% 증가, 대일 수출은 5.5% 감소하였음. 이어 상위 5위 수출시장은 순위별로 인도, 한국, 독일임

❑ 중국의 중약재는 세계 171개 국가에 수출하는데 아시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통적인 주요 수출시장임

■ 2013년 아시아 국가로의 중약재 수출액은 1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2% 증가, 전체 수출규모의 63.4%를 차지함

■ 상위 10대 수출시장 중 아시아 국가가 7개를 차지하는데 특히 홍콩은 세계시장으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서 수출규모는 22.4%를 차지함

그림 Ⅳ-49. 중약재 수출대상국별 비중_2013년



자료: 中國医保進出口商會

❑ 오랫동안 일본은 중국 중약재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매년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유지해 왔음. 국제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2012년도에도 중국 중약재의 대일본 수출은 22.4%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음. 하지만 2013년도 대일본 수출액은 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 감소하여 처음으로 중국 중약재 수출시장에서 2위로 하락하였음

❑ 대자본에 의한 투기로 가격변동이 심함

■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입중량과 수입단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이는 산조인 이외 품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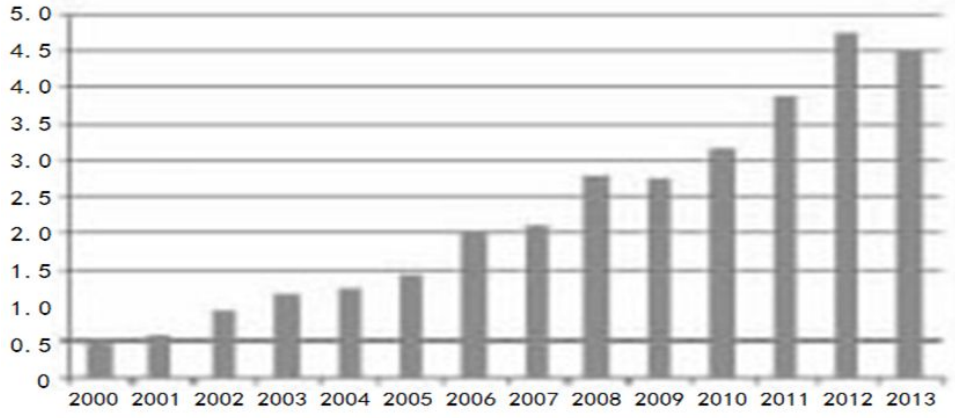
표 Ⅳ-50. 산조인의 수입중량 및 수입단가

연도	수입중량(톤)	수입단가(원/kg)
1995	206	2,309
1996	217	2,348
1997	113	2,466
1998	96	3,643
1999	131	2,724
2000	108	2,669
2001	73	2,812
2002	99	2,705
2003	44	3,142
2004	142	2,362
2005	97	4,340
2006	203	3,690
2007	173	3,588
2008	181	5,732
2009	28	7,795
2010	73	13,004
2011	48	14,613
2012	63	12,270
2013	30	15,732
2014	15	22,984

자료: 관세청

그림 Ⅳ-51. 대일본 중약재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中國医保進出口商會

3. 주요 채소류 및 약용작물에 대한 품목별 피해 추정 및 전망

❑ 채소작물의 경우, 한·중 FTA 이행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업 부분 생산액이 5%에서 15% 수준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교역수지 역시 107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채소작물의 경우 대중 농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관세에 의한 영향이 큰 품목으로 한·중 FTA 이행 시 큰 폭의 생산액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품목 단위 비교 시 HS 품목 분류상 12류에 속하는 약용작물은 중국산과 비교하여 비교우위에서 열세에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어명근 외, 2008)

❑ 한·중 FTA가 타결되었으나 양념채소는 양허에서 제외되어 현행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임. 한·중 FTA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중국 양념채소의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으나 최근 중국산 양념채소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중국산 양념채소의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임(KREI농업관측센터, 농업전망2015)

■ 채소류는 FTA가 체결되고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 고추·마늘·양파는 관세가 높아도 필요에 의해(국산으로 자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 다대기(45 → 44.5%)와 김치(20 → 19.8%)의 관세율 감축 수준이 아주 작아 단기적으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고추류의 총수입 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냉동고추의 비중은 감소하고 기타소스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급식, 가공업체 등의 대규모 수요처에서 기타소스 형태의 수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고추는 냉동고추,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등의 형태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임

■ 마늘은 냉동마늘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현행 수입 구조가 지속될 전망임

■ 양파의 수입은 미미할 전망이며, 건조나 냉동형태로 가공된 양파 수입량이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양파 생산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입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파 자급률은 95% 이상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양파 총공급량은 안정적이나 조생종 재배가 줄고, 중만생종 재배 및 저장이 증가하는 등 완만한 생산 구조의 변화가 예상됨(KREI농업관측센터, 농업전망 2015)

■ 고추·마늘의 경우 가정용 수요는 가격과 소득에 모두 비탄력적으로 안정적이나 가공·외식용 수요는 수입산 및 국내산 가격에 탄력적임. 국내산 양념채소류의 수요와 가격의 향방은 중단기적으로는 외식·가공용 수요에 의존적일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으로 가공·외식용 고추·마늘에 대한 수입산 이용이 더욱 증가하면 국내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대형 업체들이 일정 기간 계약방식으로 원료를 조달하여 상품화하기 때문에 일단 수입산으로 국내산을 대체하면 상품화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이용선 외, 2013)

Ⅴ. 한·중 FTA 대응방안 및 발전 전략

1. 대응 전략의 기조

❑ 전제조건: 교역확대 ⇒ 경제통합 ⇒ 문화통합

■ 한·중 FTA는 미국이나 EU·캐나다 등과의 FTA와 달리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이고, 지리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사실상 첫 경제영토의 확장임.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출이나 수입증대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의 교역확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함

■ 농산물만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지만, 전체적인 음식문화와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논의가 달라질 수 있음. 우리의 자본이 중국농업에 투자될 수 있다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매력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고 중국과 우리나라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을 것임. 그러한 의미에서 농산물의 관세 인하에 연연해하지 말 것. 정부는 농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교역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거래대상은 장기적으로 벤더(經銷商)가 아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 ⇒ 현지 지역유통망에 올라탈 것

■ 앞으로 전개될 판매전쟁에서는 현재 관행처럼 經銷商 중심이 아닌, 소비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는 유통업체 중심의 상품조달·구매전략이 중심이 될 것임. 중국의 경우 Walmart처럼 전국단위의 유통업체는 없는 대신 1-2개 省을 대상으로 한 지역유통망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품을 사고 파는데 이러한 지역유통업체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임

■ 우리의 상품이 主流 漢族시장에 얼마나 파고 들어가느냐가 앞으로 중국시장 공략의 key임. 지역유통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특히 IGA(International Growers' Alliance)라고 하는 단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체는 원래 미국에서 전국단위 유통업체인 Walmart에 대응하여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위해 지역의 grocery가 연합한 단체로 설립되었고, 세계적으로 지부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있으나,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有名無實한 상황) 중국에서는 17개 유통업체가 중국 IGA의 회원사이며 지역별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 상품이 아닌 文化를 팔 것 ⇒ 韓流만이 아닌 漢流를 일으킬 것

■ 앞으로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문화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될 것이며, 문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질 것임.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전통(儒敎, 三國志·水滸志 등 소설 등)과 관습(元旦, 대보름, 端午, 仲秋節 등)을 공유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임

■ "별에서 온 그대"에서 보듯이 고급한 의미의 PPL 전략·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파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 역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漢流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win-win전략이 될 것임. 사실 과거부터 韓流보다 漢流가 압도적이었음. 한·중 FTA를 양국의 문화통합으로 승화시켜야 함

❑ 농업피해는 부류별로 실제 피해를 냉정하게 따질 필요

■ 일반적으로 농업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으나, 이는 품목별로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쌀·밀·옥수수 등 식량작물은 중국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영무역을 통해 거래를 통제하고 있음
- 과실류는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검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가 체결되더라도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함. 물론 앞으로 검역문제가 해결되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함
- 채소류는 FTA가 체결되고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임. 다만 중요한 것은, 수입이 될 만한 것은 이미 수입되고 있다는 현실임. 배추·무와 같이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은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수입되기가 힘든 상황이고, 고추·마늘·양파는 관세가 높아도 우리 필요에 의해(국산으로 자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시 이미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입을 못하게 하는 것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수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더욱 중요한 것은 다대기와 김치의 관세율 감축이 소폭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내산 고추, 마늘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은 현실적으로 두 나라 모두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이 있어 단기간내 수입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국의 육류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로의 수입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농산물과 식품이 문화라는 경쟁력을 가질 경우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 灼鷄與啤酒(치맥)은 그런 의미에서 "반쪽의 성공"임

- 중국인들에게 치킨과 맥주라는 새로운 음식조합을 제시하고, 월드컵과 연계하여 돌풍을 일으킨 것은 분명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치밀한 마케팅 전략 등의 뒷심이 없어 이러한 돌풍이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일회용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중국과 한국은 한 영토라는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할 것 ⇒ FTA는 단순한 상품의 이동이 아닌 생산요소의 이동이고 경제통합

■ 한국과 중국을 전체 대상으로 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그러한 시각에서 보아야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함

■ 이미 青島·烟臺는 순수한 중국영토라고 보기 어려움. 산동성의 주요 도시에는 韓國城이 있어 한국의 세련된 문화를 전파하고 있음. 明洞과 濟州道도 같은 의미에서 순수한 한국의 영토라고 보기 어려움. 중국 국경절에 서울 명동은 이미 요우커(遊客)가 점령했고,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중국의 투자 없이는 유지되기 힘든 상황임. 앞으로 FTA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 로마帝國의 전성기에는 地中海를 로마의 바다(우리 바다)로 해서, 아프리카 북부의 밀이 로마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교역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렸음. 한·중 FTA가 심화될 경우 西海는 경제교류 활성화를 상징하는 바다(內海)가 되고, 이 바다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상품·노동·자본이 거래될 것임. 한국은 이를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에 접근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의 세련된 문화를 흡수하여 더욱 고도의 소비사회로 진입할 것임. 현재 한국과 山東省을 잇는 교통편(항공, 해운)은 주당 120편 이상이고,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임. 한국의 서해안은 명실상부한 경제와 교역의 중심이 될 것임

2.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

❑ 농식품 가공·유통기지 건설: 서해안 간척지(농산물+ 기업브랜드+ 자본)

■ 현재 시화·새만금 등 서남해안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간척지는 농식품 교역을 위한 최적의 생산·가공기지임. 이 땅에서 ⅰ)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이, ⅱ) 한국과 중국의 초일류 기업에 의해, ⅲ) 최고급 식품으로 만들어져, ⅳ) 한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음

❑ 華僑를 적극적으로 활용 : 화교는 이전부터 사실상 FTA를 해 왔음

■ 華僑는 세계최대의 이민 경제집단으로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경제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음. 격년에 한 번씩 열리는 世界華商大會는 화교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그동안 화교의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으나(토지소유 제한 등), IMF 위기 시 투자규제 완화를 통해 화교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중 FTA를 계기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임

■ 화교는 한·중 양국에 모두 터전을 두고 있고 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화교는 대부분 山東省 출신인 만큼(동남아시아 등의 화교는 福建省·廣東省 출신이 많음) 발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해안의 교역확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민단체와의 연계 : 농협, 한농연, 품목단체와의 相生

■ 일반적으로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고, 그러한 인식을 확산시킨 주체가 농민단체임. 앞으로 FTA 비준과정에서도 농민단체는 치열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이는 정치상황과 맞물려 가속화될 것임

■ 다만 농민단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농업을 業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체와는 사안별로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농민단체와 가공·유통업체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 마련, 협업을 원하는 업체와 생산자 단체 간의 거래 중개 시스템 구축 등이 방편이 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의 경우, 사실상 일반기업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MOU 등을 체결해서 사안별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경우,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개별농업인이 진출할 경우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품목단체의 경우, 품목단체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에 판매해 주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품목단체가 기술·생산물을, 대기업이 자금·판매망을 제공하는 관계 설정이 필요함. 품목단체-대기업-정부간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가능함

❑ 중국 연해에 가공·판매기지, 내륙에 광범위한 생산기지 조성

■ 중국은 원래 전체가 농업국가이나, 1978년 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연안은 상공업지역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음. 다만 아직 서부지역은 광범위한 농업지대로 남아있음. 비록 현재는 山東省이 고추·마늘·양파의 주산지이나 장기적으로는 서부지역으로 이전할 것임

■ FTA가 심화되기 전에 전체적인 중국의 생산기지와 판매기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고추를 비롯한 양념채소의 경우 건고추와 냉동고추의 관세가 크게 다르고 고춧 가루와 다른 양념채소가 혼합된 소스류의 관세가 크게 달라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편법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또한 국내시장의 소비경향 변화에 따라 원료식품에 해당하는 고추 관련 제품의 수입량은 감소하는 반면 김치 관련제품과 같은 완제품 형태의 수입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대비하여 관세 제도와 성분 표시제 등을 비롯한 국내 유통·검역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중 FTA가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중국의 해당품목 수급여건의 빠른 파악과 선제적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한국의 주요 채소의 경우 농업관측센터나 aT, 농협 등의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수급여건 파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의 수급상황 파악과 자료 구축이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임. 따라서 중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여건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또한 약용작물의 경우 국내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모니터링이 채소작물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과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KREI 농업관측센터의 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양념채소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식품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국내산 양념채소류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편임. 소득증대 및 식품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 증가, 그리고 농식품의 수입 증가로 농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에 소비자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 원산

지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일조함으로써 효용을 향상시킴. 원산지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와 효율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함. 예를 들어, 이력추적제나 검역업무와 상호 밀접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가 가능할 것임.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속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김장철 같은 특정시기에 기동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위반자(업체)들이 소비자가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표시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용선 외, 2013)

■ 수입농산물의 유통(원산지 관리)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부처 간 관할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음. 수입통관 단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국내 유통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영역임. 수입관리를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부처 간 수입·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업무 협력이 요청됨

■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추와 마늘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냉동고추나 다대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으로 가공·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수입 농산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관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편법 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후 추징 등의 관리가 필요함.

- 대형 급식 전문업체 등에서는 다진 양념을 취급하지 않으나 장류공장, 외식업체 등에서 수입산 다진 마늘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대량수요처에서 중국산 고추 및 관련 품목 사용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국내산 건고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중국산 다진 양념의 사용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이 요망됨(KREI 농업관측센터, 농업전망 2015).
- 흔히 다대기로 불리는 다진 양념의 경우 HS 코드상 기타 소스류로 분류되어 정확한 수입 현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음. 현재의 수입 증가추세와 그 사용처를 감안하면 관세코드를 분리하여 좀 더 면밀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음

■ 수요의 특성은 가정소비용과 가공·외식업체용, 김치용과 기타 조리용 등 용도에 따라 다름. 용도별 수요에 따라 적합한 다양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국내 양념채소류 수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 가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및 자료 구축을 위한 시스템이 요구됨. 예를 들어, 산지공판장은 도매시장 비상장거래품목인 고추·마늘의 수급균형가격 수준을 조기에 발견하

고 산지유통인, 저장업체, 1차 가공업체 참여로 투명한 원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또한 사이버거래, 인터넷거래의 가격이나 거래물량 정보에 대한 수집·분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개별거래 자료는 공표할 수 없으나 집계된 자료는 공유할 수 있을 것임. 도매시장간 통합 전자거래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추와 마늘의 전국적 균형도매가격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현재 개별 도매시장은 거래규모가 적어 도매가격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움. 도매시장간 통합거래가 추진되면 거래물량이 증대되고 균형가격을 발견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임(이용선 외, 2013)

❑ 약용작물의 선택에 있어 소비자 선호는 가격보다도 약효와 원산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성분 분석을 통해 약효가 높은 약용작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 체계를 현행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약용작물의 경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종자관리체계 마련, GAP나 친환경 인증과 같은 고품질 약용작물 인증제도의 마련과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임. 또한 검역 체계상으로는 그 세부분류가 존재하나 HS 분류 코드상으로는 분류가 존재하지 않는 약용작물의 코드를 분리하여 이들 약용작물의 수출입 현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중 간, 정부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업무 협력 요청

■ 중국의 채소류, 약용작물 생산량은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성(省)급 자치기구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음. 중국의 정책 변화를 무시한 채 국내 정책 변화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중국 자치 단위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파악하여 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중국 자치단체 측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방향을 전달이 가능하게 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국내 세관에서의 수입·유통 관련 정보와 중국 측의 수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이 요구됨

❑ 유통 제품의 품질 최저 기준치 상향 조정

■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우위는 가격 경쟁력에서 오는데, 국내 농작물의 경우 경영 구조 상 중국산 이하로 생산비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나 각 상품에 있어 품질을 상승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중국이 더 높으므로 특정 품질 수준 이상에서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함.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작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품질 최저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수입품의 안전성과 국내 농작물의 경쟁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약용작물 생산단지의 생산량 조정이 필요함. 현재 국내에서는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확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생산단지의 경우 대부분 시장의 소비 구조를 생각하지 않은 채 생산량 확대에만 몰입하고 있어 향후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같은 위험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각 지역에 조성 중인 이들 생산단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가격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생산단지의 조성을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하는 예산의 조절이나 정책의 거부 등을 통해서 달성 가능함

Ⅵ. 결론

❑ 한·중 FTA 타결 시 대부분의 중국산 품목이 경쟁력 우위에 있음. 따라서 한·중 FTA 타결 시 중국산 농작물의 수입으로 국내 농작물 시장에 충격이 예상됨. 그러나 양국의 동일 상품의 가격 경쟁력 격차는 유통비용을 고려하면 그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음. 현재 한국 소비자가 중국산 농작물에 대해 가지는 신뢰성 우려는 중국산 농작물의 가격에서 오는 경쟁력을 일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임. 또한 약용작물의 경우 한·중 FTA 타결 이전에도 할당된 관세가 8%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아 한·중 FTA 타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1월에 실질적 타결에 이른 중국과의 FTA는 타 국가와의 FTA와 성격이 다름. 중국은 타 국가와 비교해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 신선채소류와 같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선박운송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임. 또한 중국의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채소작물은 생산비 측면에서 한국에 경쟁력 우위에 있음. 그러므로 한·중 FTA 타결 시 중국으로부터 채소류, 약용작물의 수입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임. 그 결과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농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농작물 재배 농가에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또한 중국의 GDP증가에 따라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중국 내 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비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출 공급량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함

❑ 현재 한·중의 농작물 경영구조를 고려하면 생산비 측면에서 한국산 농작물의 생산비가 중국산 이하로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함

❑ 한·중 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한·중 FTA 타결 시 일방통행적인 물류의 유입만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을 포함한 자본재의 이동을 고려해야함

❑ 즉,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중국산 농작물과의 직접 가격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냉정하게 피해를 판단하고 현재의 소비자 한국상품

선호가 가격이 아닌 신뢰성 측면에서 오는 것처럼 가격 이외의 측면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수입 농작물의 안전성 향상과 국내 농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 기준 최저치를 향상시키는 경우, 그를 위한 기준치 설정점 과 그로인한 시장 충격 예측, 소비자 소비동향 변화 예측 등이 요구됨

❑ 이는 한류와 같은 문화상품의 수출을 통해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검역 제도의 정비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는 중국산 작물에 의한 충격을 감소시키며, 원산지 표기체계 및 성분 표기체계를 개선 함 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재고시켜야함. 한류와 한국산 상품의 연계 및 수출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한 연계 방법과 그 효과 예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여기에는 PPL이나 관광산품과의 연계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 최근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약용작물의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위험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국산 농작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작물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 함 으로서 발생하는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량 조절이 필요함. 국내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적 규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농민 생산자 단체와 가공·유통 업체의 수직적 계열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국내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의 한국으로의 농작물 수입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시야가 제약되어서는 안됨. 한·중 간, 정부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한국 측에서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중국과 협의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한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한국 서해안 및 중국 연해에 가공·유통 기지를 설립하여 한국 국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김치의 유형이나 맛에 대한 선호도, 지불의사 예측 등의 조사·연구가 필요함. 이는 현지나 서해안에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 생산·수출기지 조성 시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경우에도 사용 될 수 있음

참고문헌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2012), “중국의 농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
전라남도 농업기술원(1999), “중국의 채소생산 및 소비현황”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2014),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 “한·중 고추, 마늘, 양파 생산 및 유통현황”
민선형(2011), “GAP 약용작물과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지불의사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 “한·중 FTA와 농수산식품산업 영향분석 및 세계유명식품업체 현황과 경영전략 사례”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2013), “201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청(2009), “중국의 한약재 생산지 정보”
윤강재 외(2013), “중국의 중약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2012), “중의약 사업발전 12.5 규획 분석보고서
陳士林外（2005）, “中國中藥資源可持續發展体系构建”, 中國中藥雜志 第30卷第15期
董靜洲外（2006）, “我國藥用植物資源研究概况”, 医學研究雜志 2006年1月第35卷第1期
李義明（2008）, “我國藥用植物的調查報告”, 百度网
劉卉（2013）, “中藥材資源縮減不容忽視”, 中國中医藥報, 2013年12月20日 第007版
商務部（2012,2013,2014）, “中藥材重点品种流通分析報告”
馬逾英外（2009）, “中藥材流通領域現狀及對策分析”, 成都中医藥大學學報
王曉波（2012）, “芻議中藥材資源的現狀及對策, 价值工程
康美中藥网（亳州）http://www.kmzyw.com.cn/bz/
藥財盈中藥材物聯電子交易市場 http://jy.gshsyy.com/
藥通网 http://www.yt1998.com/
中藥材鼎信网 http://www.zycdxw.com/
中藥材天地网 http://www.zyctd.com/
中藥貿易网 http://www.zymyw.com/
中國中医科學院中藥資源中心 http://www.nrc.ac.cn/

부록

부표 52. 연도별 약용작물 수입량 순위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감초	감초	감초	감초	감초	감초	감초	감초	감초
2	황기	지황	복령	황기	황기	지황	둥글레	천궁	황기
3	백작약	황기	황기	지황	지황	지구자	지구자	백출	마황
4	백출	둥글레	지황	애엽	애엽	백출	복령	황기	지황
5	지황	복령	결명자	복령	복령	복령	황기	복령	복령
6	복령	결명자	백출	마황	마황	황기	지황	지황	결명자
7	둥글레	백출	천궁	백출	백출	칡뿌리	결명자	지구자	지구자
8	결명자	백작약	둥글레	둥글레	둥글레	백작약	백출	결명자	백출
9	구기자	애엽	창출	천궁	천궁	둥글레	마황	애엽	애엽
10	천궁	건생강	애엽	칡뿌리	칡뿌리	창출	애엽	건오미자	건구기자

주: 2008년, 2009년에는 1위~10위 품목의 두 해년도 수입건수와 수입총량이 품목별로 동일함. 다른 품목의 경우 차이가 있으나 1~10위 품목만 동일함. 통계 작성 실수로 추측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표 53. 2014년 약용작물 수입금액 및 수입중량

(단위: USD 1,000, 톤)

수입금액				수입중량			
순위	품목	HS코드	수입금액	순위	품목	HS코드	수입중량
1	감초	1211906000	2,072	1	감초	1211906000	448
2	원지	1211903000	1,484	2	구기자	1211909092	310
3	구기자	1211909092	1,148	3	오미자	1211909093	231
4	황련	1211902000	938	4	산사자	1211909050	186
5	오미자	1211909093	805	5	두충	1211905000	127
6	사인	1211909010	735	6	건도라지	1211909091	115
7	패모	1211904000	453	7	원지	1211903000	114
8	두충	1211905000	435	8	황련	1211902000	54
9	건도라지	1211909091	354	9	사인	1211909010	50
10	산조인	1211909020	328	10	부자	1211901000	33
11	산사자	1211909050	270	11	박하	1211909070	27
12	부자	1211901000	252	12	패모	1211904000	26
13	용안육	1211909040	79	13	산조인	1211909020	15
14	박하	1211909070	69	14	용안육	1211909040	10
15	연자육	1211909060	26	15	연자육	1211909060	7
16	초피	1211909080	12	16	초피	1211909080	2

주: 개별 할당된 관세 코드는 2013년 기준 초피, 구기자, 건도라지, 감초, 원지, 용안육, 황련, 사인, 산조인, 두충, 산사자, 패모, 박하, 오미자, 연자육, 부자 뿐임. 나머지는 '기타'로 처리되어 개별 수입액 확인 불가능.

자료: 관세청

부표 54. 한약재 수입실적 순위

	한약재 수입물량 기준				식물성한약재 수입금액 기준				한약재 수입금액 기준			
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1	복령	감초	백출	마황	감초	감초	반하	마황	녹용	녹용	녹용	녹용
2	감초	복령	복령	복령	복령	복령	백출	감초	우황	우황	우황	우황
3	갈근	마황	지황	육계	반하	괄루근	복령	반하	생녹용	생녹용	사향	사향
4	지황	지황	육계	감초	지황	반하	괄루근	복령	사향	감초	반하	마황
5	마황	백출	감초	백출	홍화	백출	감초	백출	감초	사향	백출	감초
6	산사	괄루근	괄루근	지황	원지	지황	시호	사인	복령	복령	생녹용	반하
7	애엽	육계	마황	은행엽	목단피	목단피	사인	은행엽	반하	녹각	복령	생녹용
8	후박	녹용	은행엽	애엽	용안육	시호	현호색	시호	녹각	괄루근	괄루근	복령
9	육계	길경	계지	길경	백출	길경	위령선	용안육	지황	반하	녹각	백출
10	반하	석고	갈근	용안육	시호	마황	용안육	괄루근	홍화	백출	감초	사인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표 55. 약용작물 수입 주요도 점수(물량기준)

식품 수입			한약재 수입		
순위	점수	품목	순위	점수	품목
1	129	감초	1	37	복령
2	98	황기	2	32	감초
3	93	지황	3	28	마황
4	86	복령	4	27	지황
5	65	백출	5	22	백출
6	31	결명자	6	21	육계
7	31	백작약	7	10	갈근
8	24	애엽	8	10	괄루근
9	24	지구자	9	7	애엽
10	22	천궁	10	7	은행엽
11	20	마황	11	5	길경
12	14	오가피	12	5	산사
13	10	오미자	13	3	후박
14	9	구기자	14	2	계지
15	7	둥굴레	15	2	석고
16	6	칡뿌리	16	1	반하
17	5	창출	17	1	용안육

주: 각 연도별로 1순위는 10점, 2순위는 9점, … , 10순위는 1점을 부여하여, 2010~2013 년도 합산.
자료: AGRIX 농업 통계

부표 56. 주요 품목의 용도별 수입량(2010년 기준)

(단위: kg, %)

품 목	식품용 수입량	한약재 수입량	합 계	한약재 수입비율
감초	2,814,592	1,100,969	3,915,561	28.12
지황	1,750,458	701,420	2,451,878	28.61
복령	1,388,764	1,138,696	2,527,460	45.05
백출	1,432,690	269,264	1,701,954	15.82
애엽(건쑥)	519,183	354,685	873,868	40.59

자료: AGRIX 농업 통계, 관세청 수입 통계, 의약품 수출입 협회 통계, 식물검역 연보

부표 57. 주요 약용작물 국내생산량(2012, 2013년)

(단위: 톤)

2013년			2012년		
순위	품목	생산량	순위	품목	생산량
1	건강(생강)	12,142	1	복분자	11,670
2	복분자	9,801	2	건강(생강)	10,893
3	오미자_경작지	9565	3	애엽(쑥,황해쑥)	6,994
4	산약(마)	8,499	4	식방풍(갯기름나물)	6,287
5	양유(더덕)_경작지	7,288	5	길경(도라지)_경작지	5,443
6	길경(도라지)_경작지	5,442	6	오미자_경작지	2,924
7	천마	4,886	7	양유(더덕)_경작지	2,528
8	대추	2,529	8	산약(마)	1,726
9	산수유_경작지	1,657	9	당귀(참당귀)	1,339
10	당귀(참당귀)	1,627	10	오가피_경작지	1,000
11	의이인(율무)	1,396	11	의이인(율무)	898
12	작약	1,234	12	지황	851
13	오가피_경작지	1,223	13	황기	786
14	독활(땅두릅)_경작지	1,217	14	강황	715
15	지황	1,176	15	독활(땅두릅)_경작지	599
16	천궁	886	16	천마	538
17	애엽(쑥,황해쑥)	868	17	구기자	530
18	황기	708	18	두충(두충나무)	393
19	구기자	667	19	감초	386
20	두충(두충나무)	536	20	맥문동	327
21	강황	450	21	작약	299
22	감초	372	22	택사(질경이택사)	243
23	맥문동	341	23	길경(도라지)_임야	192
24	하수오	278	24	사삼(잔대)	188
25	당귀(일당귀)	275	25	황금(속썩은풀)	173
26	어성초(약모밀)	203	26	어성초(약모밀)	172
27	길경(도라지)_임야	191	27	산수유_경작지	163
28	백출(삽주,큰꽃삽주)_임야	159	28	당귀(일당귀)	152
29	식방풍(갯기름나물)	149	29	강활	135
30	사삼(잔대)	138	30	삼백초	122

부표 58. 약용작물 국내생산량 주요도 점수

(단위: 톤)

순위	품 목	점 수	생산량 총계
1	복분자	254	52,694
2	건강(생강)	252	51,411
3	양유(더덕)_경작지	240	24,828
4	오미자_경작지	244	23,928
5	길경(도라지)_경작지	239	23,354
6	산약(마)	239	24,041
7	애엽(쑥,황해쑥)	225	12,875
8	당귀(참당귀)	223	7,177
9	오가피_경작지	216	5,238
10	의이인(율무)	209	4,483
11	독활(땅두릅)_경작지	208	4,300
12	천마	205	7,357
13	지황	203	4,100
14	황기	202	3,805
15	천궁	194	7,010
16	작약	189	2,944
17	식방풍(갯기름나물)	188	7,586
18	강황	187	2,596
19	구기자	181	2,306
20	두충(두충나무)	178	1,872
21	사삼(잔대)	176	2,464
22	맥문동	173	1,597
23	감초	167	1,356
24	산수유_경작지	165	2,227
25	대추	159	4,802
26	택사(질경이택사)	151	905
27	길경(도라지)_임야	147	857
28	어성초(약모밀)	147	760
29	한인진(더위지기)	138	673
30	하수오	137	824

주1) 2010년~2013년 각 연도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1순위는 65점, 2순위는 64점, … , 64순위는 1점을 부여하고, 전체년도 점수를 합산함.

부표 59. 산조인의 수입중량 및 수입단가_상세

(단위: USD 1000$, 톤)

기간	수입중량	수입금액	수입금액/수입중량 (1,000$/톤)	수입금액/수입중량 (원/kg)
1995	206	617	2.995	2,309
1996	217	633	2.917	2,348
1997	113	293	2.593	2,466
1998	96	250	2.604	3,643
1999	131	300	2.290	2,724
2000	108	255	2.361	2,669
2001	73	159	2.178	2,812
2002	99	214	2.162	2,705
2003	44	116	2.636	3,142
2004	142	293	2.063	2,362
2005	97	411	4.237	4,340
2006	203	784	3.862	3,690
2007	173	668	3.861	3,588
2008	181	941	5.199	5,732
2009	28	171	6.107	7,795
2010	73	821	11.247	13,004
2011	48	633	13.188	14,613
2012	63	686	10.889	12,270
2013	30	431	14.367	15,732
2014	15	328	21.867	22,984
총계	2,141	9,005	4.206	

자료: 관세청